

남가주 거울



The Mirror of Ewha

<교훈>
자 유
사 랑
평 화

제20호 2021년



서동현(66) 작품

이화여자중 · 고등학교남가주동창회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목차 Vol. 20 2021

03	인사말	이화여자중고등학교 남가주동창회장 이영희(74)
04	축사	남가주 후원 이사장 김정자(64)
05	축사	이화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박재옥
06	축사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김혜정
07	축사	학교법인 이화학원 이사장 정창용
08	축사	북미주 동창회 회장 김연숙
09	특별기고 북미주 동창회 설립배경과 취지	한영숙(56)
10	특별기고 표지작품 노트 / Pandemic Diary 1, 2	서동현(66)
11	특별기고 코로나로 님을 보내고	차명숙(57)
12	특별기고 61기, 뉴스레터 100호를 자축하며	윤수경(61)
14	감사편지 이화여고 장학생 감사편지	고 3 강민주 & 고 3 최윤서 고 3 이윤채 & 고 3 장영서
16	아름다운 이화인 김진숙 목사	이충선(52)
17	아름다운 이화인 멕시코대학 한국어반 창설이후	홍연숙(55)
19	아름다운 이화인 하나님의 선물	오소숙(73)
20	아름다운 이화인 몽골 선교이야기	김윤자(63)
22	글모음 터어키 선교사의 간증	박성녀(68)
23	글모음 사랑하는 친구 송명을 그리며	이장란(58)
24	글모음 김성희 선생님 추모글	김해숙(73)
25	글모음 남편을 남자친구로	박기순(65)
26	글모음 남편과의 몽골여행을 추억하며	호진희(64)
28	글모음 엘리아노르 아퀴텐느	이혜경(69)
30	글모음 예술과 사랑의 굴레 안에서	백혜란(70)
32	동아리 소식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 합창단	김성숙(70)
34	동아리 소식 문화탐방 모임	이선희(74)
35	동아리 소식 걷기반	김은경(74)
36	동아리 소식 이화코랄	박기순(65)
38	동아리 소식 골프 모임	신은화(74)
39	동아리 소식 민화반, 메이크업 반	심현주(69)
40	실행 / 확대 위원회	
41	동기소식	
56	동창회 & 이사회비 및 광고 / 후원금 내역	
57	동창회 공지사항	
59	편집 후기	



표지작품 / 서동현(66)

남가주 거울 이화여자 중 · 고등학교 남가주동창회보

발행일 | 2021년 9월 30일 편집인 | 전안복

발행인 | 동창회장 이영희 편집위원 | 전귀민, 조유환, 전안복, 이영희



제 20호 거울지를 발행하며...

남가주 이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회장직을 맡은지 벌써 거의 일년이 다가 오고 있네요. 그동안 코비드 사태로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제대로 다 실행하지도 못하고, 지금은 마지막 남은 12월 4일 송년행사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매년 5월에 열리곤 하던 정기 총회도 9월로 미루었다가 다시 변종 바이러스로 사태가 위험해 짐에 따라, 12월 송년행사때 같이 하기로 지난 7월 열린 실행/확대 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동창들께서 보여주시는 뜨거운 이화 사랑과 후원은 정말 저희 74 임원들을 매일 매일 감격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 보다는 많은 분들이 보내 주신 올해 동창회비와 이사회비는 동창회재정을 더욱 든든하게 해 주셔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동창회가 여러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 대표들을 통해서 코비드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신 7분의 동창들을 조금이나마 정성으로 도울 수 있었고, 종전대로 본국 학생들과 이곳 미주 학생들 장학금,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분들께 선교비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모이는 이사회나 총회는 따로 할 수 없었지만, 소규모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실행/확대 위원회, 동창합창단, 이화코랄, 걷기반, 문화탐방, 민화교실, 골프 대회등은 조심스럽게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 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 모든 동창회 사업을 위하여 여러가지 명목으로, 특히 이 거울지 발행을 위해서 넘치는 후원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여러 동창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작년말에 거의 1000명이나 되는 남가주 동창회 명단을 받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너무나도 꼼꼼히 행정을 잘 해 오신 역대 회장단 여러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 74 임원들이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이 수월하고 효율적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힘든 시기에도 정애수 회장님을 비롯하여 73모든 임원들께서, 모국 재학생 방문, 유관순 기념관 재건축 후원금 모금, 주소록 발간등 큰 일들을 너무도 훌륭하게 잘 해 내신 것,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시 이화에서 받은 훌륭한 교육, 모교를 사랑하는 열정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74 임원들도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하여 맡은 임기 동안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남가주의 모든 이화 가족들, 이 어려운 시기 다 잘 지내시고, 곧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남가주 동창회장 이영희(74)



‘거울’ 2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우리는 하나입니다 -

“배꽃처럼 순결하고 아름답게 교육하라!”는 고종 황제의 뜻을 따라 우리 이화는 7만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수많은 이화의 인재들이 한국의 근, 현대 사회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자유, 사랑, 평화의 씨앗을 조국 땅에 뿌리며 자유 민주 국가를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화의 가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Covid19 Pandemic으로 모두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서도 ‘거울’ 20호를 발간하여 대단히 기쁘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Covid19으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New Normal”,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untact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뒤바뀐 세상에서 우리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참석이 두렵고 가까운 지인을 만나 악수하는 일이 꺼려집니다. 코로나시대에 일상적으로 강제되거나 권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는 ‘고립된 나’라는 현대인의 숙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Corona Pandemic이 가져다 준 균열과 모순을 극복해야 합니다. ‘고립된 나’에서 ‘연대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우리는 ‘타자를 위한 존재’로 끊임 없이 변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듯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제 2차 세계 대전이 우리 부모 시대를 정의했다면 코로나 19는 현 시대를 정의하는 잊지 못할 사건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잊지 못할 사건’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자적 자아’보다는 ‘관계적 자아’에 훨씬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을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강한 연대 의식과 추진력이 유례 없는 코로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남가주 이화 동문들도 하나의 가족이 되어 서로 관심을 보이며, 배려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동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가주 후원 이사장 김정자(64)

참여하고, 협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동창회



남가주에 계신 동창 여러분께 서울의 정동길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69년에 졸업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백주년기념관 화암홀에서 있었던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앞으로 2년간 동창회 살림을 꾸려갈 명령을 받았고, 힘내라는 격려의 박수를 받은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는 1911년 중학과 4회 졸업식 후에 결성되었고 올해로 110년이 되었습니다. 이화의 역사가 깊은 만큼 총동창회 역사도 깊었습니다. 동창회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선후배 동창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모교발전을 위해 애교 정신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졸업으로 고등학생의 신분을 떠난 후 각자의 길을 찾아 각자의 모습이 형성된 뒤에 다시 학교를 찾아와 교정을 돌아보고 추억을 더듬으며 또 한번 우정과 모교사랑을 지어가는 것이 동창회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 보다 졸업한 후에 더욱 애뜻해진 이화사랑으로 '거울'이라는 끈을 통해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 더욱 반갑습니다. '거울'은 얼마나 반갑고 정겨운 이름인지요? 54년에 창간되었으니 67년 동안 정동에서 비추고 있고 남가주에서는 2002년 8월부터 벌써 19년째 이화인의 모습을 비추어주니 이름만 들어도 반갑고 정감이 갑니다. 이화인들의 필수품 '거울'을 사랑합니다.

작년에 시작되어 올해도 똑같이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되다 보니 오히려 비대면 생활의 편한 점에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년중 행사는 코로나19의 방역 문제에 부딪쳐 어려웠습니다. 졸업식, 입학식이 모두 비대면으로 최소 인원으로 치루어졌고 3월1일 유관순열사 동상 헌화와 5월 22일 스크랜튼 선교사 헌화예배에도 학생들이 없이 교직원과 동창회의 축소된 단순한 모습으로 바뀌어 쓸쓸했습니다. 매년 창립기념일에 총동창회에서는 바자회를 열고 선후배 동창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한데 올해는 평년과 같이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유관순기념관 개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온라인

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바자회를 시도했습니다. "이화마켓"이라는 온라인 장터를 만들어 기부물품과 로고상품을 홍보하였고 구매의사를 댓글로 받아 학교에 오거나 택배를 통해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경매 코너를 만들어 융통성 있는 가격으로 운영하면서 흥미도 돋구었습니다. 졸업 기수별로 봉사날을 정하여 운영의 도움을 받았고 그 기수는 그 날 오프라인 장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하는 인원이 분배되면서 그 동안 그립던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많은 동창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바자에 호응해주신 덕분에 1,322만원이라는 거금이 마련되어 유관순기념관 개축기금으로 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가주 동창회에서 온라인으로 송년회 상품을 미리 주문해 주셔서 해외 택배를 통해 전달해 드릴 수 있었기에 온라인 장터의 유용함을 체험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항공송료가 엄청나게 비싸졌고 일반 선편도 막혔는데 다행히도 미국의 여러 지역 중에서 특별히 남가주만 취급하는 선박을 이용한 door-to-door 택배회사가 있어서 가능하였습니다. 마침 택배에 남은 자리를 활용하여 '이화동산'과 이화박물관에서 발행한 '유관순과 이화의 독립운동가들'이라는 책을 좀더 보내드릴 수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매년 받아 보시던 '이화동산'을 충분히 보내드리지 못해 불편함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남가주 동창회는 이화여고 총동창회의 여러 지회 중에서 가장 많은 동창들이 모여 이화를 기리며 모교를 지원하면서 '거울'을 비추고 있으니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모교의 모든 행사와 어려운 일에 늘 먼저 동참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니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다정함을 느낍니다.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2021년 8월

이화여자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박재욱



‘거울’ 2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남가주 동창님들께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고 기
후 위기라고 할만한 이상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
려움 속에서 동창님들 모두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5월 창립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치루면서 2021년
135주년 창립 기념식은 모두 함께 이화 교정에 모여 축하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지만 올해도 역시 온라인 기념식으로 거행되
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20분의 이
화 빛낸상 수상자들과 함께 윤여정 동창님의 ‘자랑스러운 이화
인상’ 수상까지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기에 특히 더 아쉬웠습
니다. 그러나 비록 한 자리에 모여 다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
지는 못했지만 윤여정 동창님의 아카데미상 수상은 한국 영화
102년 역사상 최초인 역사적인 일로서 코로나로 지친 전 국민
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화
동창 모두와 특히 후배 학생들에게 이화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랑을 한껏 느끼게 해준 멋진 일이었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
해 동창님이 보여주신 자신감과 솔직함,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
각, 그리고 평생 도전하고 노력하는 정신 등이 바로 이화정신
이며 이화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는 코로나 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의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최선
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없이 1학기를 무사히 마쳤고 대면으로 진행
되었던 많은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시켜
실시하면서 새롭게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사고로서의 이화의 교육 역량
이 제대로 발휘되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역시 이화’라
는 더욱 높은 인정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

나님의 돌보심과 이화를 사랑하시는 6만여 동창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염려와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매 순간 한없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된 유관순 기념관 개축 사업 모금에는 대
학생인 20대 동창들부터 졸업한 지 60년이 넘는 원로 동창님
들까지 적극적으로 모금에 참여해주셔서 2021년 6월 현재 21
억원 이상의 기금이 모였습니다.

남가주 동창회에서 \$79,200 의 기금을 보내시며 이화 사
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번 모금액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하
게 모금과 기금 마련 사업이 진행되어 유관순기념관 개축 사업
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동창님들이
보여주시는 뜨거운 이화사랑, 후배 사랑은 다른 어느 학교에서
도 찾아볼 수 없는 이화만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며 말로는 다하
지 못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든든한 이화
인들이십니다.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유관순 기념관은 유관순 열사를 기
리는 공간이자 후배들이 ‘이화다움’을 배우고 동창님들은 ‘우정
과 추억’을 나누는 이화인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장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동안 언제나 모교 일이라면 앞장서서 모교 사랑을 실천해
오시던 남가주 동창회의 후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드리
며 앞으로도 재건축 기금 모금에 지속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거
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우리에게 일상의 평온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
며 남가주 동창회의 발전과 모든 남가주 동창님의 가정에 하
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2021년 8월

이화동산에서 김혜정 올림



남가주 동창님들께!

안녕하세요?

새롭게 회장을 맡으신 이영희 회장님과 동창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그 동안 남가주 동창님들이 모교 이화를 위해 애쓰신 모습 잊지 않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열정적으로 이화 동창 음악회등을 통해 「이화 100주년 기념관 건립」, 「장학기금」 모금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 가득합니다.

올해 팬데믹 상황이 아니면 북미주 총 동창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남가주 거울지를 통해서 만나 뵙네요.

미국인 감리교 선교사 메리스크랜튼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공교육 기관으로 세우신 우리 이화는 135년 동안 그정신을 잊지 않고 여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화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고 원하지 않는 정책 변화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화는 이화다움을 잃지 않고 여성교육에 앞장 서 왔습니다. 모든 이화인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대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지켜가며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접목하여 언제나 처럼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화, 세계로 뻗어가는 이화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남가주 동창님들

이화는 하나님의 큰 뜻에 의해 세워졌고 늘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처럼 모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가주 거울지 발행 축하드립니다.

학교법인 이화학원 이사장 정창용



남가주 이화인 여러분께

우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맞이하여 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을 견디어 내며 살고있는 우리는 총성없는 전쟁을 치루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질 수 없고 져서는 안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이가 자꾸 생겨나서 이 전쟁은 점점 길어질 것만 같습니다.

북미주 동창회 소식을 전해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시카고 동창회는 북 미주 동창회를 2020년도에 주관하게 되어 총회를 치루기 위해 준비기간이 무려 5년이 넘어 6년에 이릅니다. 2016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총회를 할때부터 임원들이 참석하였고 2018년 보스톤 총회에는 전 임원이 참석하여 보스톤 동창회 전 동창이 합심하여 적은 인원 임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총회를 주관하시는 모습들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동창회도 더욱 잘 조직하고 빈틈없이 운영해서 시카고 총회를 통해 이화여고 동창들의 우의와 결속을 다지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COVID-19의 발현으로 인한 팬데믹의 시작으로 10월에 계획했던 북 미주 총회는 무산되었습니다. 합창 공연장과 만찬장, 호텔등을 예약하고 총회를 준비하던 인원들은 물론이고 시카고 총회에 참석하시려던 서울을 비롯한 전 미주의 각 지역의 동창들이 많이 실망하시고 섭섭해 하셨지만 불가항력으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내년에는 상황이 개선되어 총회로 모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각 지역 회장님들과 ZOOM MEETING으로 2020년의 총회의 토의 내용이었던 1974년에 지어졌던 유관순 기념관 개 보수를 위한 모금을 결의하고 시행

하였습니다. 모금액은 기본 기부금은 \$131로 정했습니다.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기를 의미하는 100과 3월 1일 삼일 운동의 의미를 함께 하는 뜻에서 3,1을 더하여 \$131입니다. 기부금은 상한선을 두지 않고 얼마든지 기부하실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기부금은 EWHA EDUCATIONAL FOUNDATION으로 관리하며 TAX DEDUCTION STATEMENT를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자 성함은 북미주 총회와 총동창회에 기록됩니다. 2020년 12월에 \$10,000과 2021년 5월에 \$100,000을 서울 동창회로 송금했고 아직도 기부금을 모금하는 중입니다.

2021년이 되어 올해는 총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다시한번 각종 시설을 예약하고 준비하는 중에 델타변이의 출현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작년에 하려다 못한 총회를 잘해보려고 호텔예약을 위해 EMAIL을 주고 받던 때 였습니다. 또 한번의 반복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인지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결과 동창 한분 한분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자고 결정하고 2021년 북미주 시카고 총회를 비대면으로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북미주 비대면 총회는 각 지역회장님들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통보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창들이 참석해주셔서 뜻깊은 북미주 동창회가 되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북미주 동창회장 김연숙

북미주 동창회 설립 배경과 목적



한영숙(56)

2004년, 제가 남가주 동창회장으로 있을 때, 당시 이화여고 교장으로 계시던 정창용 선생님께서 이화가 번영을 하려면 동창회가 든든해야 한다는 신봉조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북미주 동창회 창설을 제안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이화여고를 졸업한 동창이 약 6만명인데 그중 ¼이 외국에 있으며 외국 동창의 반 이상이 남가주에 있으니 남가주가 주축이 되어 북미주 동창회를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져,바쁘게 준비를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정창용 교장선생님과 당시 총 동창 회장이던 김숙희(56) 회장님 이하 10여명의 동창회 임원들이 서울에서 오시고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 7개 지역에서 오신 50여명 그리고 남가주에서 70여명이 참석하여, 2004년 10월에 발기총회를 성황리에 Los Angeles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30여명이 Las Vegas, Bryce, Zion Canyon 여행을 하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해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북미주 동창회의 목적은 각 곳에 흩어져 있는 동창들의 결속력을 굳게하고 친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각지부 동창회의 발전을 도우려는 것이었고, 또하나의 목적은 동창후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모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미주의 많은 지부들이 Non Profit Status 를 갖추지못하여 후원금을 포함한 모금과 전달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미주 동창회는 “Ewha Educational Foundation (EEF)”이라는 Not for Profit Organization 을 만들어 IRS에 등록을 하였고, 구체적인 첫사업으로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에서 파송되어 이화의 설립자가 되신 Mary Scranton여사의 기념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분의 크신 뜻과 희생으로 세워진 이화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은혜의 빛 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사랑에 보답하고자 열악한 곳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여성 인재들을 돕자고 결정하였습니다. 최한희 (64) 동창이 모금위원장으로 모아진 \$280,000을 감리교 여선교회

(United Methodist Women) 로 전달하여 지금도 아시아권의 나라들에서 젊은 여성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04년 북미주 동창회가 창설된 이후로 매 2년마다 미 전국을 돌면서 북미주 동창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는데 올해는 4년간 열심히 준비한 Chicago에서 모일 예정 이었으나 covid 19 상황으로 인하여 애석하게도 취소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 제 2회 2006/7년 Washington, DC 회장 : 김광자 (62)
- 제 3회 2008/9년 New York 회장 : 김수자 (61)
- 제 4회 2010/11년 Cleveland 회장 : 김정진 (66)
- 제 5회 2012/3년 Philadelphia 회장 : 김혜경 (63)
- 제 6회 2014/5년 Hawaii 회장 : 변희진 (75)
- 제 7회 2016/7년 Toronto 회장 : 주영미 (76)
- 제 8회 2018/9년 Boston 회장 : 이경해 (69)
- 제 9회 2020/21년 Chicago 회장 : 김연숙 (70)
- 제 10회 2022/23년 San Francisco 회장 : 김경려 (64)

위에 열거한 지부 이외에도 Atlanta, Dallas, Detroit, Seattle 등등 저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동창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운영은 동창회를 맡은 동창회에서 하며 총회를 할때에 차기회장/동창회를 선출하여 인준을 하고, 역대 회장들이 고문이 되어 후원과 운영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EEF President로 김정희 (56 Chicago)동창께서 수고하시고, 본인은 회계를 맡아서 서울본교에 장학금과 특별 후원금 모금 전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미주 동창회가 각지부 동창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신 본교 교장선생님과 동창회장님들, 특별히 미주 각지역에서 온 성의를 다해 수고해 주시는 회장님들과 모든 동창 여러분께 거울지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미주 동창회가 계속해서 이땅에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여 더욱 더 선한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서동현(66)

표지작품 노트



팬데믹 일기1

2020년 초

먼 곳에서 소식이 오고 있었다
 뒷짐지고 구경하듯 가볍게 지나 가겠거니 하고 우리 괴짜
 대통령은 독감도 매년 생명을 앗아 간다며 골프장에서
 남의 나라 일로 귀찮게 군다고 상을 찌뿌렸지
 관광객 몇명이 가져간 COVID-19 이 이태리 밀라노를
 삼켜 버리고 나서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봄을 맞으며 CA 도 봉쇄령이 내려지고 일상의 일들이
 어려워져 버렸다
 고등학교때 뒤척였던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를 들쳐 보니
 주인공인 의사가 위기를 감지하고 관료들에게
 행정적인 지시를 내려주길 원하지만 녹장을 부린다
 어쩔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네!

COVID-19이 날 묶어 놓기도 했지만 불안감 초초함
 막연함을 일기 쓰듯 작품으로 풀어내니 미래의
 희망도 볼 수 있었다
 80년 후에 이 기록들이 무슨 말을 해 줄수 있을지...

팬데믹 일기2

오래된 이야기 처럼, 책 에서만 있던 일이
 예고 없이
 반길수 없는 손님 처럼 찾아왔다
 거절 할 수 없었다
 스물 스물, 이곳 저곳 안개 피어나듯
 두려움이 온몸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알수 없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일기 쓰듯 하나씩 모양을 잡아 손에 쥐여 보니
 두려움은 한발 뒤로 물러나 있었다
 2020년
 소중한 것을 알게 해준 해이다
 이전의 날들이 그랬듯이 오는 시간은 계속 될 것을 안다
 모두가 지금까지 견디어 왔듯이...

2021년 이월에

코로나로 님을 보내고...



차명숙(57)



남편을 마지막 면회
 갔던날 이틀 전부터 온
 마스크를 끼고 금식했
 던 오후였다.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작은 것으
 로 바꾸었고 정신은 맑
 았다. 몇마디 말을 주고
 받으며 그는 “나, 안 죽
 어.” 하며 힘 주어 말했
 다. 잠시후 부드럽고 가

벼운 저녁 식사가 나왔다. 그의 마스크를 벗기려는 내 손을 물리
 치며 허둥 지둥 음식을 입에 넣는다. 요구르트, 우유, 푸딩 그리고
 젤로를 다 먹은 후 만족한 듯 눈을 감는다.

매끼 식사후 전화를 걸어 “나, 밥 다 먹었어, 당신은 이런 음식
 못해 즐겨야 배 불러 죽겠어.” 했다. 나를 안심 시키는 말이었다.
 그날, 면회날 아들과 내가 지켜 보는 가운데 마지막 만찬을 맛있
 게 들고 밤부터 무의식 상태에 들었고, 열흘 후에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이 세상 모든것을 사랑했고, 감사했고, 행복했다. 원하
 는 것은 다 가져야 했고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했던 그가 기울어 가
 는 가세에도 현실을 그대로 받아 들이며 불평 없이 행복했다. 참

존경스러웠다.

“여보, 여보 “침대에 누워 황급히 나를 부른다. “노을이 너무 예
 뵀.” 길건너 3층 아파트 지붕위로 넘어가는 저녁 노을을 보라고
 재촉한다.

몇 분 남지 않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난 건강해 죽겠어. 서
 울 있는 아들이 통화 할 때마다 ‘아버지 120세 입니다.’ 라고 해” 하
 면서 자기의 건강을 과시하곤 했다.

어느날은 아주 명쾌한 목소리로 “나 오늘 과거에 잘 못한거 다
 회개했어. 다섯 시간 기도 했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 사람은 당
 신이야. 나 죽지 않고 살아서 당신 더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해.” 했다.

오늘도 뉴스에서는 코로나와 전이 바이러스가 수그러 들지 않
 고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한계는 언제까지 대응할
 수 있을런지 저속히 염려스럽다. 나 코로나를 앓고 살아 남았으니
 그이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편안히 눈을 감았으리라.

50여년, 부부 공동체로 살아 왔으니 반세기가 길다면 길고 짧다
 면 짧은 세월이다. 서로의 존엄이나 동등함을 훼손하면서 행복했
 다고만 말 할수는 없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모두 승화되고 아
 림답게 기억 되는가 보다.

많이 보고싶다...사랑 합니다 !!!

제 20호 남가주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홍연숙(55), 차명숙(57), 이용복(63), 이혜경(69)



윤수경(61)

61기의 뉴스레터 100호를 자축하며

우리 61기의 자랑이며 긍지인 뉴스레터 100호 발간을 축하하며 남가주 거울지를 통해 이를 알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울지 애독자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참으로 장장 35년의 긴 역사를 이어온 우리 61기(미주)의 뉴스레터가 100호를 마지막으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돌아보면 엇그제 같은데 시간이 흘러 헤아려 보니 35년 여의 긴 시간이 쌓여 있군요.

처음엔 인디애나의 한 동창의 간절한 친구 찾기에서 시작되었지요. 한사람 친구를 찾으면 그 주소를 서로 주고받으며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한 작은 일이 간단한 친구들의 소식을 알려주는 한 장짜리 편지처럼 오고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서로 동창들을 찾기 시작했고 새로운 동창을 찾으면 또 알려 주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한 장짜리 편지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어 팸플릿 같은 형식으로 각 지역의 소식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각 지역마다 소위 지역대표가 생기게 되었고 이 지역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주선하며 지역소식을 뉴스레터를 통해 알리는 데 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하던 것이 분량이 많아지게 되어 2달에 한번씩, 그러다가 일 년에 두 번씩 상반기 후반기로(봄,가을) 발간하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이 3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뉴스레터 발간에는 지역과 지역 대표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지역마다 번갈아가며 책임지고 뉴스레터 원고를 모았고 모아진 원고를 편집하면 다른 지역으로 넘겨서 메일링 하는 분담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지역에서 2년 정도 지역대표와 지역동창들이 편집과 메일링을 책임지고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0주년(2011년) 리유니언을 기점으로 종이 소식지 보다는 웹과 블로그로 소식을 주고받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절대 다수의 미주 동창들이 그래도 종이 소식지가 더 정겹고 또 그때만 해도 컴에 익숙지 않은 우리들이 웹과 블로그를 자주 방문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어서 계속 종이 뉴스레터를 발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금년 리유니언 60주년이 되기까지 남가주 61기가 책임지고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월 또한 장장 10년이요 드디어 지령 100호가 된 셈입니다.



뉴스레터 발행이 계속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당연히 지역대표들과 동창들의 협조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드는 이 일에 전 미주 61기 동창들의 아낌없는 재

정 후원이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재정적 후원이 없었다면 아마도 뉴스레터 발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총 편집 량 32 페이지에 (letter size) 180부 발행하여 각 지역으로 메일링을 하는 수고를 남가주 61기가 10년 동안 한 셈

이지요. 그사이에 리유니언 60주년에 맞추기 위해(100호) 특집을 3번 발행했고(36페이지씩) 마침내 100호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61기도 80을 바라보게 되었고 지역마다 운전 때문에 모임도 쉽게 가질 수 없는 형편이 빈번해지고 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주소 변동이 많아서 지역마다 대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아쉬운 것은 뉴스레터 100호는 금년 60주년 리유니언 행사를 기념으로 대대적인 특집을 꾸밀 계획이었으나 팬데믹 때문에 모교의 행사가 없어 아예 한국으로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모든 편집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내년(2022년)에 모교에서는 60기, 61기와 62기를 함께 초청하여 60주년 리유니언 행사를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것도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린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짜내어 100호 또한 특집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다행인 것은 한국의 동창들이 97호부터 합세해주어서 한국동창들 소식과 (유관순 기념관 보수공사 후원, 장학금 및 모교 후원금 행사) 미주 61기 동창들의 소식을 모아 (후원행사는 동일

함) 알차게 꾸밀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9월에 있을 동창모임에서 뉴스레터 남가주 쏽파티를 대대적으로 가질 예정인데 이 소식은 거울지 원고가 마감되는 관계로 내용과 사진은 알리지 못하게 됨이 또한 아쉽습니다.

이화 135년의 역사에서 그 어느 기에서도 해내지 못한 뉴스레터를 100호 까지 중단 없이 발행한 사실은 길이 이화 역사에 남을만한 업적이라고 감히 말해 봅니다. 또한 우리 미주 61기, 특히 남가주 61기의 자랑이요 금지인 뉴스레터는 이화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에도 영원히 남을 찬란하고 아름다운 우정의 산물임을 자부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후배들도 이번기회에 61기 선배들의 우정을 본받아 한번쯤 뉴스레터 발행을 시도해 보기를 권합니다. 시작이 반이라 하지 않던가요?

모든 동창들에게 살롬을 선포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심이 가장 큰 힘이 되었으니까요. 거울지 애독자님들 모두에게 신 6; 24-26의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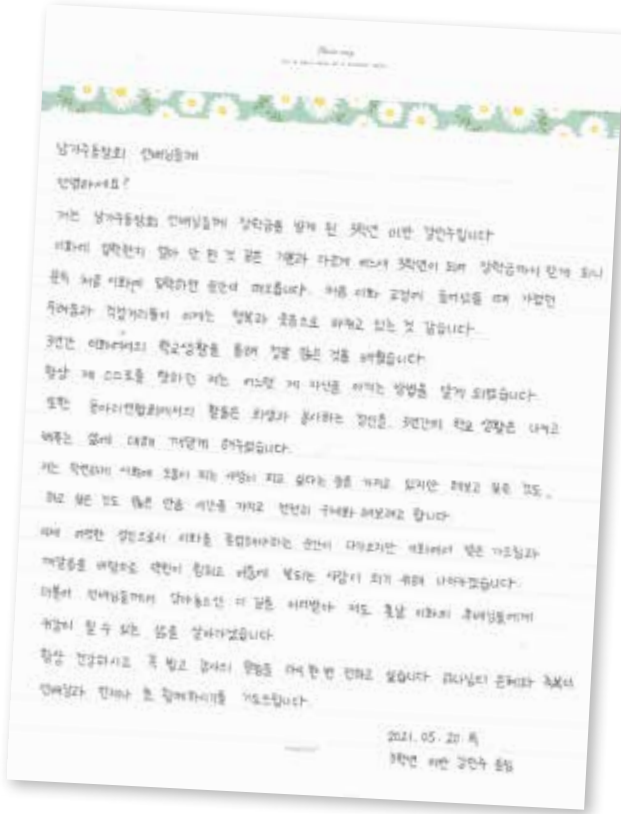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성원으로 동창회를 지원해 주신 모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74 동기일동

이화여고 장학생 감사편지



남가주동창회 선배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남가주동창회 선배님들께 장학금을 받게 된 3학년 미반 강민주입니다. 이화에 입학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기분과 다르게 어느새 3학년이 되어 장학금까지 받게 되니 문득 처음 이화에 입학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처음 이화 교정에 들어섰을 때 가졌던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이 이제는 행복과 웃음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년간 이화에서의 학교생활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제 스스로를 탓하던 저는 어느덧 제 자신을 아끼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아리연합회에서의 활동은 회생과 봉사하는 정신을, 3년간의 학교 생활은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해보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만큼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구체화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서 이화를 졸업해야하는 순간이 다가오지만 이화에서 받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약한이 힘되고 어둠에 빛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 선배님들께서 닦아놓으신 이 길을 이어받아 저도 훗날 이화의 후배님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꼭 빙고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선배님과 언제나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1. 05. 20. 목
3학년 미반 강민주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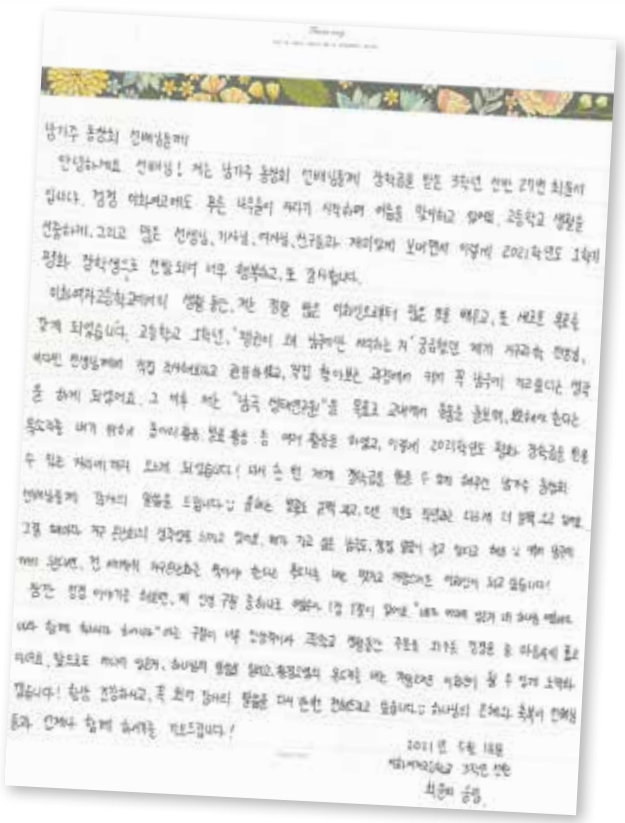
남가주동창회 선배님들께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남가주 동창회 선배님들께 장학금을 받은 3학년 선반 27번 최윤서입니다. 점점 이화여고에도 푸른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하며 여름을 맞이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생활을 신중하게, 그리고 많은 선생님, 기사님, 여사님, 친구들과 재미있게 보내면서 이렇게 2021학년도 1학기 평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의 생활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이화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평권이 왜 남극에만 서식하는지' 궁금했던 제게 지구과학 선생님이, 이대반 선생님께서 직접 조사해보라고 권유하셨고,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커서 꼭 남극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남극 생태연구원"을 목표로 교내에서 동물을 돌보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동아리활동, 발표 활동 등 여러 활동을 하였고, 이렇게 2021학년도 평화 장학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남가주동창회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하는 벚꽃도 일찍 피고, 더운 기온도 작년과는 다르게 더 일찍 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남극도, 점점 얼음이 녹고 있다고 해요. 커서 남극에 가게 된다면, 전 세계에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멋지고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되고 싶습니다!

잠깐 성경 이야기를 해보면, 제 인생 구절 중 하나로 여호수아 1장 9절이 있어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라는 구절이 너무 인상적이라 고등학교 생활동안 주문을 외우듯 성경을 늘 마음속에 품고 다녀요. 앞으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환경오염의 목소리를 내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꼭 빙고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선배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1년 5월 18일
이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선반
최윤서 올림



이화여고 장학생 감사편지

남가주동창회 선배님들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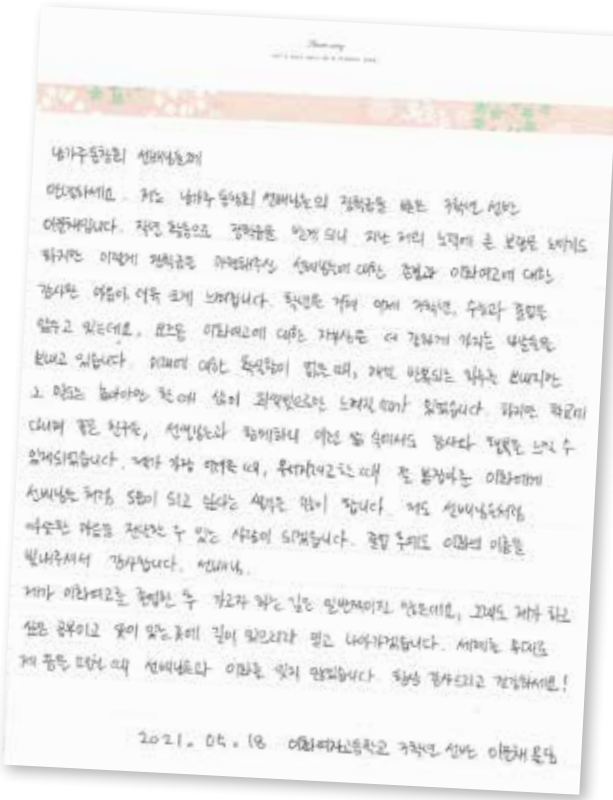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남가주동창회 선배님들의 장학금을 받은 3학년 선반 이윤채입니다. 작년 활동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니 지난 저의 노력에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렇게 장학금을 마련해주신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과 이화여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학년을 거쳐 이제 3학년, 수능과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화여고에 대한 자부심을 더 강하게 가지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함이 없을 때,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지만 그 밀도는 높아야만 할 때 삶이 회색 빛으로만 느껴질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며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하니 이런 삶 속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무너지려고 할 때 절 붙잡아준 이화여고 선배님들처럼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선배님들처럼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졸업 후에도 이화의 이름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제가 이화여고를 졸업한 후 가고자 하는 길은 일반적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공부이고 뜻이 있는곳에 길이 있으리라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제 꿈을 펼칠 때 선배님들과 이화를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2021.05.18

이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선반

이윤채 올림



남가주동창회 선배님들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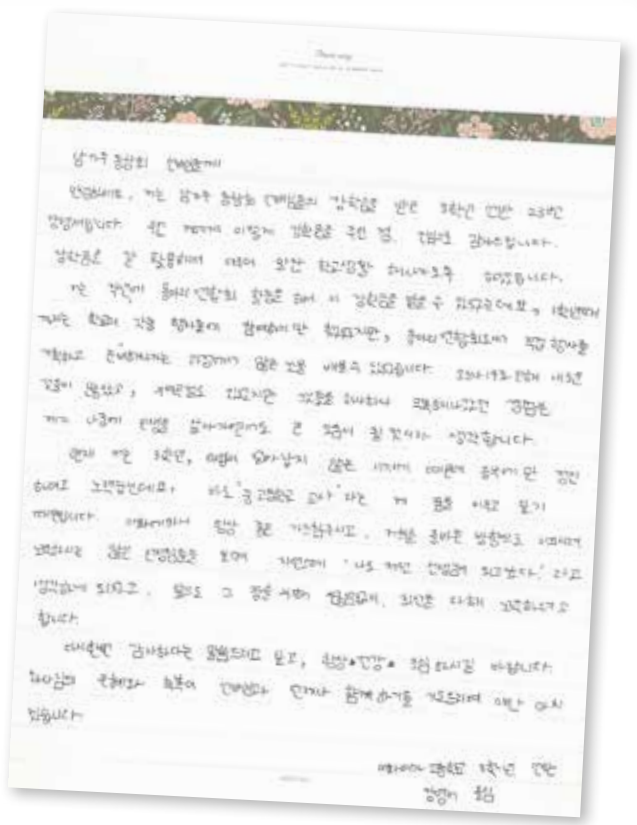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남가주동창회 선배님들의 장학금을 받은 3학년 선반 23번 장영서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학금을 잘 활용해서 더욱더 알찬 학교생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동아리연합회 활동을 해서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1학년때 까지는 학교의 각종 행사들에 참여하기만 했었지만, 동아리연합회로서 직접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것들이 많았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하나 하나 극복해나갔던 경험은 제가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3학년, 대입이 얼마남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에만 정진하려고 노력중인데, 바로 '중고등학교 교사' 라는 제 꿈을 이루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화에 와서 항상 좋은 가르침주시고, 저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려 노력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싶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 그 꿈을 위해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선배님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3학년 선반

장영서 올림





이충선(52)

김진숙 목사님을 추모하며...

미국장로교단, PCUSA / Presbyterian Church (USA), 에서 보라빛여인이며 Homeless의 대모로 알려진 김진숙 목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각 다섯권의 책을 저술하여 PCUSA에 기록을 남긴 자랑스러운 이화의 큰 별이다.

목사님의 도전의식과 학구열은 남달랐으며, 대단한 노력이셨다. 초등학생때 월남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이화에 합격하셨으며, 6. 25동란중 55년에 이화를 졸업하시고, 그 시대에는 드물게 신학교에 입문 하신 대선배님이시다. 선구자적인 안목으로 일찌기 영어의 필요성을 인식하셨고 영문학사를 취득하신 후에, 미8군에서 사무를 보셨다. 그사이 세 아이의 엄마가 되신 선배님은 7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다.

낯설은 미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선배님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계속 되었다. 시카고 신학 대학을 거쳐 Fuller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시고, 87년도에 Fuller에서 여성으로는 두번째 목사안수를 받으셨다.

목사님은 본인의 탁월하신 성실, 열정, 당차신 추진력으로 사역에 매진 하였으며, 놀라운 설득력도 지니셨다.

2000년에는PCUSA 가 엄두도 못내는 일을 목사님은 모두의 의구심을 물리치고 차근차근 한발부터 내딛게 되셨다. 보라색 티셔츠를 입고, 옷 보따리를 들고 다니며, 노숙자들에게 나

누어 입혀 가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것이 보라색 여인의 유래 이다. 트럼프대통령같은 백인 남자들이 정장을 한 가운데에서, 체구도 유난히 작은 동양 여인이 어떻게 보였을까? 관심도 없었고 누구도 인정 하지 않았던 목사님이 계획하고 기록하며, 몸소 목사님의 방식으로 10여년을사역하고나니, 모든 동료가 보라색 티셔츠, 보라색 넥타이를 매고 큰 회의실을 보라색 풍선으로 가득 채우고 써프라이즈 칠순잔치를 해주었다고...

나와 목사님과의 처음 만남은 목사님 생애의 말년인 2014년 이였다. 평생을 써서 모으셨던 글을 총정리 하기 위해 조용한 장소로 지정 받은 곳이 우리집이였다. 만남시기가 목사님 인생의 총정리 시기이기도 하지만, 멈춤이 없는 열정, 학구열에 변함없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 보면서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이 인연으로 저서를 끝내시고 전주대학에서 교수로 계실때 개발도상국가에서 유학온 남학생 2명을 우리 한아 장학재단에 소개하여 지금 꿈나무로 크게 성장하였다.

목사님은 짙막한 편지를 남기시고, 지난 7월3일에 향년 85세로 평화롭게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여러분과의 오랜 세월동안의 사랑과 변함없는 후원과 우정을 가슴에 보물로 간직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숨쉬게 하는 산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으로 여러분은 나를 등에 업고 함께 걸어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워주셨습니다...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알길이 없습니다. 김진숙 목사 드림”



보라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처럼, 또한 흠리스들의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색이다.

보라빛은 목사님사역의 색이고, 목사님 인생의 색이었다.

기적처럼 창설된 멕시코대학의 한국어반 4년을 돌아보며...



홍연숙(55)

멕시코대학의 한국어 프로그램에 관하여 거울지에 원고를 보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첫 번 원고는 한국어가 창설 되던 2017년 가을학기였고, 두 번째는 2018년에 보낸 1년간의 경과보고였다. 필자는 이제 세 번째로 4년 만에 현황을 자랑스럽게 여기 보고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동안 우리가 한국어를 세계화하는데 이화동창회가 물심 양면으로 후원해 준 데 대한 보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 한국어 프로그램은 작은 기적들로 설레임 속에 창설되었고, 사탄의 방해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역사하셨고, 지금은 매학기 100명 가량의 학생들이 한국어반에 몰려오고, 이번 학기에는 7개반으로 늘어서 “즐거운 비명”이지만, 멕시코 당국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자격을 갖춘 강사를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당면 과제이다.

한국어의 창설 동기

이 한국어반의 창설동기는 실로 특이했다. 2017년 3월 22일, 필자는 난데없이 “에네켄한인후손 후원단체”의 회장단의 방문을 받았다. 필자가 전에 미국대학(U Penn)에 한국어강좌를 신설해준 경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온 것이다. 4년전 필자는 한양대학에서 은퇴하고 LA교외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던터여서, 멕시코 대학에 한국어 프로그램을 창설해 만들어달라는 그의 요청은 너무나 의외였다. 나는 정중하게 거절하였다. 그런데 그 회장님의 아래와 같은 절절한 사연을 듣고, 그만 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말았다.

사연인즉, 1905년 4월, 조선말기에 영국의 악덕기업인이 중국과 일본에서 노동자를 동원하려다가 사정이 여의치않자 가난한 우리 백성에게 접근하여, “4년만 일하면 큰 돈을 벌여 금의환양한다”고 속여, 1033명을 배에 태워 멕시코로 간 것이다. 도착해보니 기대와는 달리 남자는 에네켄(알로에의일종) 농장에서 사람기보다 큰 알로에 잎을 하루에 3000장 이상을 베야하는 중노동자, 아니, 노예로 팔려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아무튼 채찍을 맞으며 4년을 채웠지만, 돈을 주지않아 기다리는 중에 1910년 조국인 조선은 일제하에 나라를 잃게 된다. 돌아갈 고국도 없게 된 우리 불쌍한 선조들은 땅을 치고 울며 멕시코에 남아 인간 최하의 삶을 이어가게 된다. 아무튼 이들의 후손들이 현재도 티화나 등 멕시코에 3만명이나 살고 있으며, 이 후손들을 위하여 멕시코의 명문대학인 UABC (Universidad Autonoma de Baja California)에 한국어반을 설립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다.

이 요청을 어찌 안 들어줄수있겠는가! 그 후, 필자는 만사를 제쳐놓고, 석달 동안, 필요한 모든 준비(강의계획서, 교재, 강사진)를 갖추어, 멕시코 대학에 한국어강좌를 2017년 가을학기에 마침내 창설하게 된 것이다. 강의계획서는 필자가 준비했고, 교재는 서강대학교에서 무료 기증을 해 주는 기적으로 이루어졌고, 두 분 강사도 3중 언어(한국어/스페인어/영어)를 구사하는 천사들로 하나님이 묘한 방법으로 보내주셨다.

UABC 대학교는 알고 보니, 학생 5만명이 되는 큰 주립대학으로 캠퍼스도 3개의 도시 (Mexicali에 본교, Tijuana와 Ensenada에 분교)에 있다. 이 대학의 외국어센터는 8개 언어(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었고, 한국어는 그 9번째 외국어가 된 것이다. 이 대학에서는 외국어가 필수이고, 한 학기에 6학점이나 되는 과목이다.

순풍을 탄 첫 학기와 닥쳐 온 재정난

첫 학기는 모든 절차가 기적처럼 잘 풀리고 신바람나는 시기였다. 한국어수업은 K-POP 등, 한류에 힘입어 인기가 높아서 일본어를 배우던 일부 학생들이 옮겨왔고, 우리의 젊은 강사들의 열정도 불타올랐다. 스페인어와 한국어는 비슷한 발음이 많아(특히 모음과 된소리 ㅃ, ㅆ, ㅈ) 멕시코 학생들이 한국어 발음을 너무나 잘하고, 한국노래(아리랑)와 음식(김치, 떡볶기)까지 한국문화를 너무나 좋아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호사다마”라 하였던가! 뜻밖에 닥쳐 온 건

재정난이었다. 최초로 K회장이 필자를 찾아와서 한국어창설을 요청했을때는 “모든 재정적인 책임은 제가 지겠으니, 흥교수님은 학사기획만 해주시면됩니다!”라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그 분이 개강이후—여기에 설명할 수 없는 사정으로—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이 사건은 공부밖에 모르는 필자와 두 강사 선생님에게 청천벽력이었다. 멕시코는 생활수준이 낮은 편이라 그 대학의 월급은 시간당 미화 \$5.70에 불과하여(월\$250), K회장은 두 강사에게 시간당 \$20을 더 지급하겠다고(월\$800) 약속했던 것이다. 한국어강의는 매월 40시간이나 되는데, 이나마도 “자원봉사”차원밖에 안 되었다.

한마디로 저희 교수진은 진퇴양난에 빠졌던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태어난 우리 한국어반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계속하자니, 당면한 재정난으로 눈 앞이 캄캄하였다.

은혜한국어재단 (Grace Korean Foundation)의 설립과 한국 문화의 활성화

그러나 기적은 멈추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몇명 교육기관(미주한국학교연합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본 이화동창회)과 한인 유지들, 그리고 필자의 친지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왔다. 주위의 충고로 마침내 세금면제가 되는 작은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게까지 되었다.

재정 위기 중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어반 학생들은 나름대로 문화활동의 꽃을 피워나갔다. 매년 9개 외국어반 단위로 열리는 가을문화축제와 구경행사에서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아리랑과 “까지까지 설날은...”을 부르며, 팽과리와 태권도, 투호를 즐기고, 떡볶기, 만두, 김밥 등 한국 음식을 현장에서 만들어 나눠 먹기도 하였다. 한복은 LA의 여러 교회에서 기증을 받아, 수백명이 모인 축제마당(팽과리 소녀 뒤에 관중)을 완전히 주름 잡았다.



한국어(Coreano) Booth: 떡볶기와 녹차 판매



2018한국의 전통놀이 투호던지기와 태권도 생도들

당면과제: 한국어 강사 양성 프로그램

애당초 본 한국어과정은 “3개년 계획”으로 기획되었다. 우리가 3년동안 강사와 재정을 지원해 주면, 그 이후에는 자립할 줄 알았다. 그런데 한국어 강사를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그냥 우리가 손을 떼면, 언제 한국어반이 없어질지 모른다. 예를 들면, 2017년에 우리가 한국어반을 티화나(Tijuana) 캠퍼스에 신설한 다음 해인 2018년에 Ensenada 캠퍼스에도 한국어반이 신설되었다. 바로 필자가 만든 학사계획서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그리고 유능한 20대 남자 강사가 2년동안 3개반을 열정적으로 가르쳤다. 그런데 그가 부친의 와병으로 더 좋은 월급을 받고 한국어반을 떠났다. 그 결과 그 캠퍼스의 한국어반은 하루 아침에 없어졌다. 자격을 갖춘 강사만 구하면 당장 다음 학기부터 강의의 재개를 할 수 있는데...

현재 티화나 캠퍼스에는 강사 세 분이 7개반을 맡고 있는데, 60대 초반의 남성 한 분(교포)과 멕시코인 20대 후반의 여성이 두 분이다. 이 여성 강사들은 언제 더 좋은 직장으로, 혹은 언제 결혼으로 떠날지... 솔직히 예측할 수 없고,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다! 어렵사리 이루어진 한국어 프로그램이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재단 이사들과 한국어 강사회의를 거쳐,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미 3년간 가르쳐 놓은 졸업생들 중에 몇 명을 한국에 유학을 보내서 강사로 양성하고, 이들이 돌아와서는 모교 대학에서 가르치도록 조건화하는 것이다. 앞으로 1년에 두명씩 한국에 유학생을 보낼 계획인데, 최소 연 1만6천불이 필요하다.

지난 여름, 다른 이유로 한국에 한 달간 방문하는 중에 필자는 한 대학의 유학 담당자를 만나서 협의하고 왔다. 유학생의 등록금과 기숙사는 한국 대학에서 제공하고, 우리 재단에서는 항공권과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이었다. 아무쪼록 주위에 많은 후원자가 나와서 도와 주었으면 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한다.



하나님의 선물

오소숙(73)

지난 1년반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저희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저희는 몽골로 보내심을 받았거든요.

이런 시기에 왜 가려고 하느냐? 모든 문이 꽁 닫힌 그곳에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비자를 받을수나 있겠느냐? 나이가 좀 많으냐? 66세에 무슨 선교를 가느냐?

현실의 벽은 "아니올시다" 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께서는 저와 남편의 요구리를 콕콕 찌르시면서 가라고 재촉 하시더라고요... ㅎㅎ

미국에서의 삶을 단칼에 정리하게 하시고 떠밀리듯이 (?) 한국에 나왔던 저희의 손을 꼬옥 붙잡고, 하나씩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급기야는 지난주에 몽골비자를 받

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8개월만에 쾌거였습니다. 저희도 인간인지라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안 힘들었다고 말할순 없겠지요.

왜 이리 더디냐고 항의도 했었구요.

몽골에서의 요청으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면 저희 부부는 그분에 부르심에 따라 몽골로 들어갑니다

백발이 성성해서 들어가지만, 저 헤브론 산지를향해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갈렙처럼 심장이 마구 뒹을 느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고,

마음 상해서 하나님을 찾는 몽골 민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것이

저희부부를 향하신 그분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가막힌 하나님의 선물을 몽골 땅에 잘 풀어놓고 오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풀어놓는 방법도 그곳에서 그분께서 잘 보여주시겠지요?

그 땅에서, 늘 그분 앞에서, 맑은 눈과 맑은 마음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부부의 기도입니다.

- 김포에서 -

강은주 (72) Anne Jung



가주 장의사

California Mortuary

“23년 동안 주인이 직접 운영”

가주 장의사 FD 1648는 1998년부터 가족의 마음으로, 가족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마음으로 고인의 마지막을 위해 저렴한 장례비용, 정성과 성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여의치 않으신 경우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저희 가주 장의사는 다운니에 위치해 있으며 편리한 교통과 넓고 안전한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및 예약 전화번호
(562) 622-9393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E-mail: Camortuary@gmail.com



김윤자(63)

몽골선교 이야기

1963년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는 나이팅게일의 꿈을 안고 이화여대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4학년 때 지금의 남편 이광언 장로에게 내 꿈 얘기를 했더니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을 했다.

대학 졸업하면서 1967년 미국에 도착한 후 열심히 살았다. 두 아이가 태어나니 가정사 중심에 아이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양육과 생계를 위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어느 틈인가 선교사의 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다.

61세 유방암에 걸렸을 때도 선교사의 꿈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불치의 폐염증에 걸려서 수술 후 기흉으로 죽을 뻔했을 때, 천국문을 보고서야 갑자기 기억이 났다.

할머니가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를 시작하여 68세 나이에

상담학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당시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담학 교육학 박사학위를 주셨는지 매일 주님께 질문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가난한 나라에 가서 거저주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제서야 50년전 나의 꿈이었던 “선교사”가 생각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역정을 냈다. 그래서 50년전 당신이 함께 선교 간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매일 졸랐더니, “그럼 당신 건강이 안 좋으니까 L.A.에서, 또는 서울에서 비행기로 3-4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면 비용을 전액 지원할 터이니 찾아 보라는 승락을 받았다.

마침내 2015년 8월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 도착했다.

후레 정보통신 대학, 영어과 교수자격으로 비자를 받았다. 물론 강사료는 받지 않는다. 문자 그대로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몽골 말 한마디 못하면서 겁도 없이 딱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도착한 몽골에서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긴 여행 끝에 월세 \$500 아파트에 도착한 첫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계단은 완전 암흑이라서 비상용 flash light를 켜고 아름답 4층까지 기다시피 올라갔다. 몽골 땅이 나를 환영하는 건지 뭔지 답답했지만 아무튼 선교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다.

도착 2주째쯤 되던 어느 날 새벽 1시 반 쯤인가? 갑자기 문이 부서져라고 문두드려는 소리에 너무나 무섭고 놀라서 깬다, 문밖에서 웬 몽골 남자 고함 소리로 전등을 켜고 화장

실에 발을 들여 놓았더니 물이 첨병첨병! 수도관이 터졌고 아래층이 홍수가 된 것을 이내 알아차렸다. 몽골 말을 모르니 문을 열수는 없고, 나도 큰 목소리

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속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몽골 남자 목소리가 사라졌다. 그날밤 밤을 꼬박 새면서 물을 퍼서 sink와 Shower장에 버렸다. 다음 날 학교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어서 내 돈으로 변상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무난히 해결이 되었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는 그대로 방치되었다. 나는 별수 없이 칠혹 같은 계단을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울면서 오르고 내렸다. 특히 장바구니하고 물병을 들고서 오르내리기에는 7순 노파에겐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





또 2주쯤 지난 한 밤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문이 부서져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몽골말로 소리소리 질러 대는데 문을 열어 줄 수가 없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는 경고 때문에)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한참 후 유리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더니 집 채만한 소방차가 눈에 들어왔다. 앗! 불났구나! Backpack에 Laptop computer, 여권을 집어 넣고서 문을 열었더니 온통 연기가 가득 찼고 불냄새가 진동했다. 정신없이 4층 계단을 뛰어내려갔더니 소방차는 이미 떠났고 사람들은 짐을 들고 각자 아파트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여차했더라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는 생각이 나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습니다!

한번은 얻어 타고가던 자동차의 바퀴가 Manhole에 빠져서 혼쫓이 났다. (돈이 없으니까 쇠뚜껑을 누군가 훔쳐갔다) 또 한 번은 웅덩이에 빠져서 고생고생을 했다, 너무나 힘에 겨우니까 매일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왜 날 이곳에 보내셨냐고?

학교 강단에서 꿈이 없다는 학생들을 앞에 놓고 꿈을 가지라고 외쳐보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절망의 눈빛으로 한마디도 안 하는 여학생에게 가정형편을 물었더니, 엄마가 암환자

인데 교회에서 청소를 해서 먹고 사니 등록금 낼 형편이 못되었다. 장학금을 줄 터이니 열심히 공부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었더니 마침내 Multi Media 학과를 무난히 졸업했다.

몽골은 모계사회이다. 예컨대, 아빠가 돈이 없어서 먼 곳으로 돈 벌러 간다고 집을 떠나면 그곳에서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한편 엄마는 다른 남자를 들여서 살면서 또 아이를 낳는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산다고 아빠를 미워한다. 어떤 학생은 평생 아빠를 보지 않겠다고 했다. 몇몇 여학생들은 임신을 해서 학교를 떠나기도 했다. Eku 라는 남학생은 5년째 대학을 다니는데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로 번돈으로 등록금을 내면서 삼촌집에 얹혀산다고 했다. 나는 가을 학기를 마치고 귀국했는데 어쩐지 Eku 학생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학교에 연락해서 Eku의 등록금이 얼마나 밀렸는지 물었더니 \$500 이 밀려서 졸업을 못한다고 했다. 등록금 미납이면 졸업장을 발급하지 않는 것이 학칙이다. 다음날 \$500 을 송금해서 Eku 가 졸업을 했다. 지금은 Shanghai University 에서 MBA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지난 5년동안 이렇게 저렇게 등록금을 못 내는 150여명 대학생들과 신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었다. 생각하면 할 수록 내가 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예까지 올 수 있었다. 전적으로 할머니 선교사를 믿고서 \$100~\$10000 의 후원금을 헌납하신 분들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다. 특히 \$10000후원금을 몽골은행에 예치하면 매년 은행 이자로 1년 등록금 \$1200을 소천하신 부모님 또는 남편 이름으로 매년 기념장학금을 주고 있다. (현재 7분의 기념 장학금 구좌가 있다.)

이 나이에 내게 무슨 힘이 있겠는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학생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며 9월 학기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다. 금년 가을 학기에는 많게는 100%, 50%, 적게는 25% 장학금을 40여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히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회에서 매년 \$1000 후원해 주셔서 학생 1명에게 장학금을 동창회 이름으로 수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워하는 몽골 젊은 학생들에게 빛으로 소망으로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박성녀(68)

터어키 선교사의 간증

이화는 은은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여인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는 학문의 전당입니다. 이문을 나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울고, 웃고, 고통 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어려운 날들을 지나는 동안, 승리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서 용기 주는 일들을 합니다. 칠월 이십 이일에 제가 만난 브런슨, 앤드류 목사님의 간증을 거울지에 올리는 것은 고목의 새싹은 더 튼튼히 자라고 배꽃은 더 희어지며 우리들의 가슴은 깊은 믿음으로 넘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브런슨 목사님은 시리아의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터키에 있는 조그만 장로교회에서 25년째 선교를 하고 있던 중, 터무니 없이 미국의 CIA 요원으로 테러를 일으켰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되었습니다. 터키 정부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 사건은 미국과 NATO 동맹국 사이에 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삼십 여년 긴 세월의 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갇힌 목사님은 본인의 믿음으로는 전혀 감당할 수 없었던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문과 박해는 마음까지 잃게 하는 흑심한 것이었습니다. 자살까지 할 수 있었던 절망감과, 믿음을 저 버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시시때때로 공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격들을 이길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제 가슴이 시리도록 아파왔던 것은 그가 옥중에서 고문과 어려운 박해를 당할 때 예수님은 아무 형태로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진실된 기도를 한없이 드렸는데도 예수님은 항상 조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나쁜 소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문과 박해를 영과 육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지 않았어도 늘 나와 같이 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고문과 박해를 받으며 배운 것은 눈에 보이는 승리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라고 말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어머니가 면회 오셨을 때 엉엉 울면서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일들을 전부 버릴 겁니다. 그냥 아내와 아이들에게 돌아가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앤드류야, 나도 네 심정을 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네 앞에는 2000년 동안 고문과 박해를 받았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고 긴 줄에서 있는데 너는 지금 그들의 맨 뒤에서 서 있는 것이란다.”고 대답 했습니다. 결국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목사님은 주님을 배반하려 했던 마음을 조금씩 회개 할 수 있었습니

다. 성경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와 이름의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 할지어다” 를 붙들고 박해의 날들을 다시 선한 싸움으로 대면하기 시작 했습니다. 간신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입니다. 그는 저희들을 향하여 “예수는 증오가 넘치는 폭도들에게 공격적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지금도 크리스천 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혹 미국에서도 크리스천들이 합당치 못한 사회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 박해를 당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이상 육신이 약하여 고문 받기 힘든 시간에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배신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 하십시오.” “평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마음을 다하여 복종할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 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지 않을 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고문과 박해에 냉철하게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다니엘서 11:32 을 읽으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가야 할것이다. 성령님은 순간마다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지구력 및 인내의 힘, 희망, 자신감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끝 마무리 잘하도록 도와 주십니다. 명심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계획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계획에 응답하십니다. 나의 시간대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대에 응답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라고 반문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 하십시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심한 고문으로 예수님을 배반 합니다. 그분들은 옥에서 풀려난 후 수치감으로 다시는 목사나 선교사로 일하기를 거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아시고 ‘내 은혜가 네게 충만 하도다 (고린도후서 12:9).’ 라고 말씀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는 응답 하라.” 고 부탁 했습니다. 그의 간증이 끝날 무렵 내 마음 속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펼쳐진 하늘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US President Trump는 Vice President Mike Pence 를 시켜서 터키 대통령에게 그의 말, “만일 브런슨 목사님을 당장 석방하지 않으면 미국은 터키가 감히 감당 할 수 없는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다.”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터키 대통령은 그 다음날로 목사님을 석방하고 미국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는 2년 반 후에 풀려 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송명을 그리며



이장란(58)

명이 우리 곁을 떠나던날 우리들 모두 너를 그리며 조용한 슬픔으로 서로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했었지. 활짝 핀 꽃송이 속에 미소 지우고 있는 너의 사진속 얼굴을 보며 땅위에 있는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향하여 천사들 보호 받으며 독수리 날개 타고 가고 있을 “명” 너에게 “잘가” 라고 맘속으로 작별을 고했어.

우리는 매주 토요일 합창 연습을 위해 만났고 심한 육체의 아픔을 견디면서 열정을 갖고 능동적으로 연습에 임하던 네 목소리가 귓전을 스치며 바람처럼 눈물 되어 지나가고 있어. 인생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 지지만 우리들이 만들어 놓았던 인생의 Puzzle 들은 Time machine 을 타고 한없이 회전 하고 있잖아.

이화여고 동창 합창단……”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은 너와 함께 부르던 찬양이었기에 허전한 마음 달랠수가 없구나. 우리모두가 지나가야 할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을 지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너와 대답 없는 추억속의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구나…….

너를 사랑 했던 Los Angeles, San Francisco, 그리고 서울 친구들, 모두가 너와의 이별을 안타까워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주님 품안에서 다시 만날수 있다는 소망속에서 큰 위로가 되는구나.



성탄파티에서 명과 함께

항상 미소띤 얼굴이 너무 화평했고 어여쁘던 너의얼굴이 내 앞을 스쳐 지나 가고 있어…어렵고 힘든 투병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너무감사,감사 하다고 기도했던 너 였지. 하나님 뜻이라면 분명히 치유 될수 있을 것 이라고 긍정적 소망으로 살았던 너 “명”!

2020년 이화 총 동창회가 주는 이화 봉사상을 받으며 “내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큰 상을 나에게 수여 해 준 모교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고싶다” 라는 너의 수상 소감을 들었을때 명! 너는 58 친구들의 큰 별이라고 생각 했어.

인생 80을 넘기는 오랜 세월을 우리들과 함께 너를 이땅에 남겨 주시고 너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열심히 살게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면서 하늘 나라에서도 하나님 말씀 따라 아름답게 영원 무궁한 영혼으로 오래 오래 존재하기를…… 나의 친구 명! 잘가요 꽃길 밟으며…… 안녕히



김해숙(73)

김 성희선생님을 그리워하며...

학창시절, 지리과목을 담당하셨던 김 성희선생님은 칠판 가득히 세계지도를 한 손으로 순식간에 그리시며 특유의 열정과 재치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가르치셨던 명교수 명강의로 유명하셨다.

그 후 오랫동안 만나뵙지 못하다가, 2000년대 초부터 73동기들 모임에서 (2달에 한번 모임) 스승의 날에 미국에서 사시는 은사선생님들을 모시면 의미있겠다고 뜻을 모아서 2020년 팬데믹 시작하기 전까지 매년 만나뵙 수 있었다.

김 성희선생님과 함께 주 영혜선생님, 김 옥규선생님을 꽃피는 5월에 작고 정갈한 음식점으로 초대하여 예쁜 코스지를 가슴에 달아 드리고 스승의 노래를 불러 드리면, 우리들의 지극히 작은 성의에 너무나 고마워 하시고 좋아하셨다.

김선생님은 해마다 정성껏 만들어 드린 카드를 꼼꼼하게 스크랩북으로 만드셔서 보고 또 보고하셨다. fashion 감각이 유난히 뛰어나셨던 선생님은 젊고 멋있는 스타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뿐 아니라 누가 선생님인지 누가 학생인지 모를 정도로 멋을 아시는 분이셨다.

식사 후엔 어김없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지리과목으로 퀴즈를 내셔서, 남편과 육아로 지쳐 머리가 백지장같아진 우리는 답을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지만 함께 웃으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어떻게 선생님은 정말 목소리가 날 정도로 지명과 사건들을 다 기억하



시는지 거의 천재의 수준이셨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셔서 목사님이신가? 착각할 정도였다.

선생님의 픽업을 도맡았던 영숙이와 경화에 의하면, 선생님은 평소 요리와 살림에도 조예가 깊으셔서 입맛이 까다로운 부군선생님을 늘 새로운 반찬으로 기쁘시게 하셨고 슬하에 2남 1녀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워내셨단다. 73동기들의 방문을 무척이나 반가워 하시며, 선생님의 애장품인 hand made 브로치를 동기들 하나 하나에게 잘 어울리는 것으로 선물해 주시던 다정다감한 분이셨다.

이제는 사랑하는 김 성희선생님을 직접 뵙 수는 없지만, 선생님의 Spirit은 언제나 우리들 가슴에 남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뵙 때까지 그리워하렵니다...

생전에 즐겨 보셨던 카드의 일부를 띄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 성희선생님!

*우리 선생님은요,
우리들 마음에 무지개색깔을 칠하셔서
마음껏 생각의 날개를 피게 하셨고요.*

*우리 선생님은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지식과 진리에 대하여
진지하게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 선생님은요,
우리들의 교실이 자유 사랑 평화의 향기로
가득하게 만드셨고요.*

*우리 선생님은요,
우리들을 대하실 때마다
예쁘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답니다.*

선생님, 아주 많이 사랑해요!!!

남편을 남자친구로



박기순(65)

인생사 마음먹기 나름이다. 매사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라 꿀 보기 싫어 잠깐 인연을 끊겠다고 결심하고 살았다. 내가 뭘 그리 잘못하며 산다고 바보 취급에 이래라 저래라 평생을 가르치려 드는가. 나도 밖에서는 웬만큼 똑똑하단 소리도 듣고, 그리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다행하게도 성격이 밝은 까닭에 하늘에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편히 지냈다.

문제는 코로나 19 때문에 생겼다.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선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편과 나는 서로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생각이 같아졌다. 행여 어떤 불이익이라도 받게 된다면 서로를 챙겨줘야 한다는 무의식 속 의식이 꿈틀 솟아오른 것이다.

그동안 쌓였던 불평불만일랑 잠시 잊어버리고, 심각해지는 비상시국에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견디고 살아남을 것인가를 얘기한다. 남편의 일터가 병원인 만큼 내 식구 하나 챙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이런저런 환자들이 드나드는 곳이니 남편에게 돌봐줘야 하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는 아니어도, 많이 노출된 곳임엔 틀림없다. 무엇을 겁내서 피하기보다는 날마다의 생활에 기쁨을 주고, 적절한 대화로 위로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시간들로 부부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일면식도 없는 남들에게도 그리하며 살아야 하거늘, 밥도 짓고 죽도 썬다 산 세월이 49년차니 무얼 망설이겠나. 마음 한구석이 짠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돌보라 싶어 얼었던 마음을 풀었다. 이런저런 하찮은 이유로 일터에서 항상 불이익을 당하는 남편이다. 젊고 약아빠진 외국인 약사들보다 배 이상의 처방전을 완성해도 누구 하나 고마워하는 사람 없다. 더 빨리, 더 많이 하라는 눈치를 주는 윗사람에, 이용하며 시기하는 알미운 동료들뿐이다.

제발 무리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해도 성격상 일이 밀려 있는 꿀을 못 보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어찌다 발생하는 실수가 면죄되는 것도 아니다. 조심하고 천천히 확인하고 절대 실수해

서는 안 된다. 나의 작은 염려는 남편에게 항상 소귀의 경 읽기다. 자업자득이니 알아서 하라고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내가 포기했다.

근면 성실이 걸림돌이 되어 본인에게 화가 되어 돌아오는 생활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니 동정도 잠깐, 나도 지쳐서 손 놓아 버린 셈이다. 그냥저냥 살아지는 세상에선 내가 참견 안해도 잘 흘러가지만, 코로나 19처럼 강력한 방해꾼이라면 내가 곁에 있어야 산다. 난 하나님 뺨이 든든하니 혼자서도 얼마든지 견딘다. 그런 걸 인정하지 못하는 남편은 자기만이 나를 보호해 줘야 하고, 자기만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야 한다고 법석이다.

못 말리는 커플이다. 피식 웃다가도 이번엔 고마운 생각이 든다. 남편 아니면 어느 누가 내 걱정을 이리하랴 싶어서다. 귀찮고 짜증만 나던 남편의 잔소리가 따스하게 들린다. 닳새 내내 일하고 주말이면 피곤키도 하련만, 내가 어디 가고 싶어 하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온통 나를 향해 초집중이다.

연애하던 때가 엇그제 같다. 뒤돌아보며 아쉬워할 것 없이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도록 만들어 보고 싶다. 날마다 궁금해서 전화하던 그때.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 미국 선교사에게 배우던 영어 성경 시간에 그를 끌어들이던 그때. 단점이라고 눈 씻고 찾아도 보이지 않던 그때. 나를 세상에서 제일 스마트한 여자라고 착각해서 결혼하려 한 남자였던 그때. (결혼 일주년이 되기도 전에 마누라가 보통보다 훨씬 멍청하다는 걸 알아버린 남자) 무엇보다 우린 철저히 서로를 존중했고, 말도 조심해서 고운 말만 사용했고, 양가 식구들에게 애정 어린 관심도 기울였었다.

지금 새로운 사람 만나서 서로 맞춰가며 어느 세월엔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될 수 있겠는가.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산 세월을 챙기자. 귀한 시간 들을 추슬러 행복한 뭉텅이로 엮어 보자. 겪어보니 이렇게 하면 어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란 답안지가 손에 있지 않은가. 맘에 안 드는 남편 버려버리고 맘에 들었던, 결혼 전의 남자친구 소환해서 살아야 하겠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앞으로의 내 인생은 펼쳐질 것이다



호진희(64)

남편과의 몽골여행을 추억하며

중국을 좋아하는 남편덕에 그곳을 세번이나 방문했더랬다. 1999년이 첫 방문이었고 조선족이 많이 산다는 용정을 찾아 갔었는데 우리가 좋아하던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보기 위해서이기도. 시인이 태어난 집을 보았는지는 기억에 없지만 그가 다니던 소학교를 가보았고 그의 어릴때 사진도 친구들도 보았던게 생각난다.

그곳에 간 김에 백두산을 둘러 오는건 당연한일로 (그곳에서는 장백산이라 하는데) 산에 오르기 전 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조선족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모두 가슴에 김일성 뺨지를 달고 있었던게 기억에 남아있다.

늘 자옥한 안개로 인해 실제로 첫번 방문에 천지를 보게 되는 건 큰 행운이란다. 천지는 늘 사진으로 많이 보던 터라 크게 감명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산 등성이에 낮게 깔린 들풀과 들꽃이 어찌나 귀여운지 그게 더 기억에 남아있다.

그리고 기대 못 했다가 보게된 광개토태왕비는 생각보다 상당히 큰 사이즈로 그 큰 돌덩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어메이징하다. 일본인들이 내용을 고치려고 했던 흔적을 보게되어 기분이 씩씩했다. 그러나 비석을 보게 된 것은 기대도 안하다 덤으로 얻은 행운...

오늘 몽골여행에 대해 쓰려다 셋길로 빠진셈이다. 몽골에서는 영어에 꽤 능통한 여대생과 전문 가이드겸 운전사를 데리고 소련제 낡은 군용짚차를 세 내어 북 몽골을 살살이 돌아보는 약간은 모험 같은 여행 길이었다.

2000년도 초기였는데 오래된 동굴벽화의 발견으로 그 즈음 벽화에 관심이 있는 여행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 여행지였다. 그러나 실상 가이드로 같이간 젊은이가 그 이야기를 들긴 했으나 가본일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실망스런 말을 해 아차 싶었다. 더 알아보고 오거나 가본적이 있는 가이드를 수소문 할걸...

몽고에서 눈에 띈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서낭당이 많다는것. 잘 생긴 나무에 울긋불긋한 길다란 천을 늘어 뜨리고 음식을 차려 놓고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아마 오히려 한국 땅에서는 더 이상 볼수 없는 풍경이겠지만 우리 어렸을때만 해도 시골 길에서 흔히 보곤 했다.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그 근처에 큰 동굴이 있다는 것과 거기에 요즘 발견된 벽화가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 찾아 다녔는데 산 언덕 중턱에 커다란 동굴 입구가 나타났

다. 50m 높이의 오르막길에 있는 동굴입구에 영락없이 서낭당이 세워져 있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린 흔적도 있었다. 발견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안내도 표지판도 없는곳. 동굴에 들어가 헤매일 판이다. 그런데 운 좋게 그 동네 유지가 나타나 어떻게 그곳을 찾아가야 하는지 안내를 해주었다. 그 사람의 가이드 없이는 도저히 찾을수 없는곳에 크지도 않은 조그마한 동물 그림이 몇점 나타나는데 아닌가. 행운의 연속.

그날 돌아오는길에 비행장에서 만난 한국인 교수가 (서경덕 교수로 기억) 그걸 보러 왔다가 찾지 못 하고 그냥 돌아가는 길이라 해서 우리가 그곳에 다녀 왔다 하니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다. Phone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어 그를 안타깝게 하였던게 기억에 난다.

몽고는 수도 울란바트라를 한 발짝만 벗어나도 제대로 된 집 한채 없이 넓은 평원에 게르 (몽고인의 텐트) 만 눈에 띄이는 곳이다. 물론 숙식도 그들과 함께 하고 게르에서 잠도 잤다. 모든 음식은 양젖, 그것으로 만든 요구르트와 치즈를 주식으로 먹는데 양고기의 누린내가 질색인 나는 거의 며칠을 굶다싶이 했다. 화장실이 없는 곳이라 굶는 건 별로 나쁜일은 아니었다.

채소와 과일은 구경도 못하는 음식만 섭취해도 애들은 볼이 빨갛고 든든해 보니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보기엔 전혀 길도 없는 들판을 운전수는 용케 잘도 찾아 다닌다. 중간중간 만나는 눈 녹은 시냇물은 손을 잠시도 담글수 없는 얼음물 이었고 식수로 쓰고 있다 한다. 며칠 머물다가 축들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 게르를 걸어 트럭에 싣고 거처를 옮긴다. 풀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화장실도 없고 음식도 맞지 않아 굶고 지낸 원시적 여행 길이었으나 제일 기억에 남는다.

**지금은 한국식 비닐 하우스를 많이 지어 놓고 채소를 길러 먹는다고 한다.



제 20호 남가주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영숙(56)



코비드19 팬데믹을 이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뫍기를 기원합니다



56 동기일동



이혜경(69)

그녀의 삶이 많이 부러웠던, 나의 아이돌, 엘리아노르 아퀴텐느 (Eleanor Aquitaine)

일상의 생활이 가끔 무료할 때면 나는 상상력을 발동 시킬 때가 많다.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지역, 성별,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들 중 내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있다. 그녀는 누구인가? 엘리아노르 아퀴텐느.

그녀는 거의 900년 전에 (b.1122-d.1204) 살았던 사람이지만 워낙이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탓에 여기 저기에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 궤적을 살펴보기 그리 어렵지 않다. 나는 이 여성에 대해서 40살이 될때까지는 몰랐는데 우연히 Carl Orff 가 작곡한 “Carmina Burana” 를 듣던 중 10번째 노래 가사에 “바다로부터 라인강까지 온 땅이 다 내거라 해도 그 영국의 여왕을 품에 안아볼 수 있다면 다 포기하리라” 하는 귀절이 있어서 도대체 이 여왕이 누군지 궁금해졌다. 그러던 중 두 영화 “Becket”와 “Lion in winter”를 보고 더 관심이 생겼고 그녀에 관한 전기와 소설들을 읽게 되었다.

유럽 역사상 왕비를 한번 이상 지내본 사람은 여럿 있으나, 두 나라의 왕비가 됐던 이는 내가 알기로는 엘리아노르 아퀴텐느 뿐이다. 그녀는 12세기 프랑스 전 영토의 1/3을 차지하던 남쪽의 풍요한 아퀴텐느 공국의 공주로 태어났고 상속자인 남동생과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어 15살도 안된 나이에 상속녀가 되었다. 당시의 프랑스는 봉건국가이므로 영주들의 상속과 결혼등 중요사는 왕의 허가를 받았어야만 했는데, 그녀의 영토가 탐난 왕은 (Louis 6세) 자기의 아들 왕자 루이 (장차 Louis 7세)와 결혼을 시켰고 곧 그녀는 포도주로 유명한 보르도의 대성당에서 1137년에 결혼식을 올린다. 나는 2014년에 이 성당을 방문했는데 중세 특유의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으로 내부는 어둡지만 장중하고 아름다운 장소이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식을 했는지 궁금했다. 아마 십대 소녀의 어리둥절한 심리상태였겠으나 미래의 왕비로서의 의전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파리로 가서 살게 되었고 곧

시아버지가 별세하자 불과 15세에 프랑스의 왕비가 됐다. 당시 유럽의 봉건 체제는 지방 영주들의 딸이 결혼을 해서 그 지역에서 떠나서 살아도 영주들의 가신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공주에게만 충성 맹세를 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약했던 왕들은 왕가 밖의 집안 출신 왕비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고로 결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영토를 가진 영주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발언권을 지닐 수 있었다.

그녀의 왕비로서의 삶도 딴 여성들과 꽤 달랐던 것이, 서양사의 큰 사건이던 십자군에 역사상 왕비로서는 최초로 참가했다. 유명한 영화 “Kingdom of Heaven” (이 영화에서 엘리아노르는 전혀 다루어 지지 않았음)의 시기이던 십자군 2차 원정에 참가했지만 동참했던 유럽 각국들의 소통 미달과 불화, 판단 착오로 이 원정은 대 실패로 끝났고 남편과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어 이혼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혼의 큰 이유는 딸은 둘을 두었으나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을 갖지 못했던 것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Salic 법 (딸은 왕위를 잇지 못한다는 내용) 때문에 왕자가 꼭 필요했고, 이래저래 성격상 맞지 않던 남편 루이 7세와 곡절 끝에 이혼했다. 그런데 그녀는 불과 2달 만에 실력도 좋게 자기 보다 나이가 어린, 장차 영국 왕이 될 (당시는 노르망디 공작이었던) 헨리 2세와 자신의 영토인 포아티에 (Poitiers)에서 결혼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세속에서 중요하다고 말해지는 “남녀간 공합”이라는 것을 보게된다. 첫 남편과 15년 동안 딸만 둘 두었으나 둘째 남편과는 13년 동안 아들을 5, 딸 3을 두어 왕성한 생산력을 보여주었다. 우스개 소리로 공합이 좋았나보다. 세 아들이 영국 왕위에 올랐고 독일, 스페인, 시실리 등으로 시집간 딸들과 손녀들을 통해서 자신이 이혼하고 떠났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 왕과 왕비들의 할머니가 되어, 근세 “유럽의 할머니”로 불리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보다 더 일찍 “유럽의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의 두번째 결혼생활은 다음의 두 영화에서 나름대로 볼수 있다. Peter O'Toole 과 Richard Burton이 나오는 “Becket”는 그녀의 역할과 지성에 별 비중을 두지 않은, 주로 두 남자들간의 갈등이 주제이나, 워낙이 원작의 (프랑스 희곡 작가 Jean Anouih 씀) 대화가 훌륭하므로 이 두 배우들의 개성있는 연기와 뜻깊은 대사를 즐기고 싶으면 감상을 추천하고 싶다. 또 Katharine Hepburn이 엘리아노르로 열연하는 “Lion in Winter”에서는 이미 많은 아들을 생산한 뒤의 원숙한 그녀를 볼수 있는데, 나는 K. Hep-



burn과 엘리아노르가 많은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두 사람 다 지적인 아름다움, 위엄과 자신감이 온 몸에 베어있는, 글자 그대로 타고난 왕비감이다. 이 두 영화들을 통해서 나는 엘리아노르가 어떤 남자와 살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녀의 아들들에 관심을 가져 보자. 첫 아들은 아기 때 잃었고 다음 네 아들은 아버지인 헨리 2세가 성장한 자기들에게 권력을 조금도 나눠주지 않자 드디어 반역을 했고 1173년에는 그녀도 참가하였다. 그녀가 반역에 참가한 이유는 여럿이 있겠는데 아들들에 동조한 것도 있지만 남편이 점점 더 그녀 자신의 정치권을 무시하고 있었다. 또 남편이 Rosamund라는 여인과 장기간 계속 하던 혼외정사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현대까지도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음) 허지만 반역은 크게 실패하고 1173년부터 1189까지 16년간 그녀는 감금 상태로 지내게 되어 아들들을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나 보게 되었다. 그녀 소유의 영토를 잃을까봐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았음이다. 세 아들들은 계속 모반을 하다가 성공했고 그녀가 남편 보다 오래 살다보니 16년 만에 해방되어 이때부터 그녀는 여러 방면에서 진정으로 그녀의 의지와 능력을 두루두루 표현할 수 있는 황금기를 보내게 된다.

그녀의 두 아들 (세째, 다섯째) 은 거의 전 세계인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리처드 사자왕 (Richard the Lionheart) 과 존왕 (King John, 영화Robin Hood에서 형이 십자군에 간 동안 왕위를 찬탈한 동생, Magna Carta로 유명함)인데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걸 보면, 좋은 일이던 나쁜 일이던 역사서에 남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 것 같다. 사자왕 리처드가 3차 십자군에 참가했다가 오는 길에 양숙이었던 프랑스와 독일황제의 계책에 빠져 인질로 잡혀 있던 시간 (1190-1194) 동안 그녀는 영국을 대리 통치하고 아들의 보석금 (왕국 전체 예산의 2배) 마련에 힘쓰는 등 많은 일을 했다.

그녀가 서양 문화사에 남긴 족적중 중요한 것들은 시문학과 기사도 정신 (Chivalry), 또 헌신적 사랑 혹은 사랑의 법정 (Court of Love)으로 불리는 독특한 현상에 영향을 끼친 점이다. 그녀가 태어난 포와티르는 북쪽 파리와는 언어도 다르고 따뜻한 기후와 자유 분방한 생활 습관으로 옛 부터 시인들이 많았고 그녀 자신의 할아버지도 (William IX, the Troubadour) 음유 시인이었으

니 그 피가 어디로 가랴? 남편이 통치하느라 자주 부재중이던 시절 (1168-1173) 자신의 영토 포와티르에 머물면서 지금은 전설적으로 알려진 특이한 궁정 생활을 하였다. 예를 들면 그 당시 대체로 거칠었던 기사들에게 우아한 매너를 가르쳐서 적이나 숙녀들에게나 모범적인 기사도를 발휘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또 그녀와 귀족 부인들이 “Court of Love”를 열어서 연인들의 사랑 싸움에 재판관이 되거나, 결혼한 부부간에 진정한 낭만적인 사랑이 존재하나 않나 같은 질문에 답하는 등의 일이다. 실제로 이 Court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실존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많지만, 나는 실제 있었던 것으로 믿고 싶고 그 믿음이 우리 인간의 문화적인 생활을 풍부하게 만든다고 본다. 기사도 정신과, 문학, 음유시인 전통등은 역사가 오래 됐지만 그녀가 왕성히 활약하던 12세기 말에 더욱 발전하여 귀족 사회 뿐 아니라 대중 일반에도 깊이 깊이 스며들었다. 이 정신은 르네상스 시기와 그 뒤를 이은 서유럽 근세의 문화예술사에 지금도 면면히 이어진다.

예술 방면, 특히 음악에서 이 Court of Love 주제는 심심치 않게 다루어져 왔으니, 1937년 초연된 독일 작곡가 Carl Orff 의 현대판 cantata격인 “Carmina Burana” 의 세번째 파트의 제목이 “Court of Love”이다. 가사는 독일 남쪽 Bavaria의 오래된 한 수도원에서 발견된 라틴어와 중세 독일어로 (작가 미상) 씌여진 시들인데 [Come, come, come, do not make me die] 같은 애뜻한 것도 있고 로맨틱한 사랑에 대한 다양한 묘사도 있으니 이것이 바로 나의 아이돌 엘리아노르가 살던 시대의 한 면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싶다. 또 그녀 자신이 10번째 노래 가사 중에 등장하기도 한다.

그녀는 평생 여러 곳을 다녔고 (그 옛날 예루살렘 까지 갔으니!), 마지막으로 1200년 카스틸 (스페인 내의 한 왕국) 로 시집간 딸이 낳은 손녀 블랑슈 (Blanche= 나중에 성인으로 추앙된 루이 9세의 모후가 됨) 를 프랑스 왕자비로 데려다 주기 위해 77세의 노구를 끌고 다시 길을 나섰다. 건강이 악화되었다. 여정을 못 마치고 자신이 생전에 많이 후원했던 폰트브로 수녀원에 (Fontevraud, 프랑스 중서부 Loire 강 근처에 있음) 머물다가 생을 마치니 82세였다.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꽤 장수한 셈이다. 프랑스 왕과 왕비들은 대체로 파리 북쪽 Saint Denis 성당 지하에 묻혀 있지만 그녀는 이혼했고 또 영국 왕비로서 죽었기 때문에 비록 프랑스 땅 안에 있으나 당시에는 영국의 영토였던 폰트브로에 안치되어 있다. 여기는 남편 헨리 II, 아들 리처드 사자왕, 며느리 (존 왕의 왕비) 등이 같이 모여있어 심심치는 않으리라. 수녀원의 뜰과 회랑을 포함한 건축물은 몹시 아름다우며 사색에 잠기면서 걸어볼만한 곳이다. 나는 1994년에 한번 방문했는데 텅빈 공간에 떠도는 적막함에 눈물이 나왔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쉴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장수, 부귀, 사랑, 권력, 위엄, 미모, 풍성한 후손들) 다 가져보고 다 해본지라 미련은 없었으리라. 이런 삶을 가져본 이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확신하건데 아마도 “Je suis très contente.” (=I am very satisfied) 라고 하지 않았을까.



백혜란(70)

예술과 사랑의 굴레 안에서...

19세기 후반에 불란서와 독일에서 태어나 예술인으로 살다 간 두 여인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카미유 클로델 Camille Claudel (1864-1943)



그녀는 1남 2녀중 장녀로 태어나 어릴때 부터 흙을 갖고 형상을 만들기 좋아하여 그녀의 재능이 뛰어난 것을 알고 아버지가 국립 미술 학교 (에콜데 보자르)에 입학 시키려 했으나 그당시 여자는 입학허가를 못받아 사립학교에 다니다가 로댕의 작업실에 제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로댕은 이름이 알려진 터라 그를 존경하던 카미유는 작업실에서의 일을 매우 기뻐하며 뛰어난 재질을 보이며 로댕과 공동작업을 하면서 그와 뜨거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카미유는 19세 , 로댕은 43세 였습니다. 로댕도 처음에는 뛰어난 제자를 자랑스러워 하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하며 같이 공동제작으로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녀는 모델역할도 하며 조수로, 제자로 뛰어난 작품을 하며 로댕과의 결혼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댕은 20년이나 동거하던 “로즈뵈레”라는 여인과 아들도 있었던 관계로 로댕은 카미유를 끝내 떠나 버렸고 그녀는 로댕의 아이까지 유산한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우울증에 알콜중독과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폐인같은 생활을 몇년을 보내는 동안 있던 작품도 다부셔버리고 극심한 경제궁핍에 시달리며 피해망상증에 걸려 심지어는 로댕이 자기 작품을 훔쳐갔다고 하며 로댕이 자기 작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례로 카미유의 작품과 로댕의 작품이 흡사한 작품이 몇점 있는데 일부사람들은 로댕이 그녀의 작품을 카피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대표작이 많지만 몇점만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로댕과 공동제작한 대표작으로는

1. The Gates of Hell
2. Les Bougeois 칼레의 시민들
3. The Kiss

이 세작품을 들수 있습니다. 그녀는 1913년 정신병원에 실려가 30년간 살다가 79세에 사망 하였습니다.

그렇게도 정신병원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남동생 폴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30년 병원 생활중 폴은 다섯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망후 폴의 손녀가 카미유의 편지와 이야기를 책으로 발표한후 그녀의 작품이 재평가 되며 작품성이 인정되어 2017년 카미유 뮤지엄이 세워졌습니다.

영화로도 두 편이 나왔으며 처음 제작된 영화는 카미유가 정신병동에 실려가는것이 마지막 장면으로 끝나고 두번째 영화

는 카미유가 있던 정신병동 에서의 3일간을 촬영한 우울한 영화입니다. 카미유는 병동에서 쓸쓸히 갔지만 그녀의 작품은 남아서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Sakuntala



The Waltz



The age of Maturity

가브리엘 뮌터 Gabriele Munter (1877-1962) 독일 작가



그녀는 잘 알려진 러시아인 바실리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 의 연인이었으며 독일 표현주의 “청기사” 그룹의 멤버로 마티스의 야수파, 고갱과 고흐의 강렬한 색채와 대담한 윤곽에서 영향을 받은 작가로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칸딘스키는 러시아인이지만 1901년 독일 뮌헨의 팔랑크스 미술학교의 강사로 나

갈때 누드 드로잉 수업에 들어온 가브리엘과 만나 사랑에 빠져 10년간 동거를 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은 25세, 칸딘스키는 36세로써 이미 칸딘스키는 러시아에 안나라는 부인이 있었지만 부인과 이혼후 돌아와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러시아로 돌아가 이혼후 가브리엘에게는 알리지 않고 1915년 “니나” 라는 러시아 여인과 정식 결혼을 했습니다.

칸딘스키가 가브리엘과 동거하던 시기에 특히 알프스산 기슭 “무르나우” 라는 곳에 머물며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칸딘스

키는 가브리엘을 떠난후 그녀에게 자기의 작품을 모두 돌려달라고 했으나 그녀는 일부만 돌려보내고 나머지 작품을 끝까지 보관 하였습니다.

나치정부가 “퇴폐미술” 탄압으로 청기사 그룹 멤버의 그림을 수색하며 다녔지만 그녀는 지하창고에 보관해 지켰으며 1957년 그녀가 80세 되던해 뮌헨의 렌바흐하우스 (Lenbachhaus) 미술관에 자기의 작품과 칸딘스키의 작품을 포함하여 유화 80점, 드로잉 330점을 기증하였습니다.

그녀는 1962년 85세에 “무르나우” 에서 사망했고 한편 칸딘스키는 교수로 있던 바우하우스가 1933년 히틀러에 의해 문을 닫은후 파리로 이주하여 살다가 1944년에 사망 하였습니다.

뮌터의 작품은 맑고 상징적인 색채와 대담하고 단순한 형태, 뚜렷한 검은 윤곽선으로 그녀 작품의 표현성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뮌터의 작품은 뉴저지 프린스턴 뮤지움에도 다수 소장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연인에게는 버림받았지만 그의 작품을 끝까지 보관하여 조국(독일) 에 기증한 가브리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서 여기에 소개했습니다.

예술이란 “ 누군가의 고통과 희생” 이 쌓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닐까요?



가브리엘과 칸딘스키



Krank (Malade)



무르나우의 풍경



무르나우의 풍경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 합창단

김성숙(70)

여러분, 매 주 토요일 아침에는 무얼 하시나요? 무슨 특별한 일을 따로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 합창단 연습에 오셔서 정말 신나고 재미있고 살 맛 나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화 선,후배님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연습에 오시면 먼저 맛있는 간식/아침을 먹으면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진 다음 석 재희 지휘자와 박 헬렌 반주자의 환상의 duo가 이끄는 발성 연습과 재미있는 연습 시간이 끝나면 신나는 점심 시간! 우리 합창단 단원들이 모두들 재능과 재주가 많으신데 특히 석 재희 지휘자를 비롯하여 전문적인 코미디언보다 사람들을 더 웃게 만드는 말 잘 하는 “강사님”의 입담에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여든이 넘으신 언니들부터 한참 젊은 후배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히히, 호호, 하하, 재미가 넘치는데 말로는 그 분위기를 제대로 전할 수가 없으니 꼭 직접 오셔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화 동창 합창단은 올해로 만 서른 살이 되었습니다. 모르는 해도 삼십 년 전인 1991년, 선배 언니들은 아마도 우리가 떠나 온 정동 이화동산에서 보냈던 소중한 시간이 되새기며, 노천 극장에 울려 퍼졌던 우리들의 찬송가들, 특히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을 추억하며, 해마다 가졌던 반 대항 합창대회에서의 맑고 예뻐던 어렸을 적 우리의 목소리와 그 때의 순수한 열정의 시간을 그리게 회상하며 이화와 선, 후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든 가운데에서

도 이 동창 합창단을 시작하시지 않았을까요?

지난 삼십 년 동안 우리 합창단은 여러 선배님들과 단원들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우리를 길러주신 이화의 정신과 가르침을 따르며 양과 질에서 모두 성장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 합창단은 남가주 이화 동창회의 모든 모임에서는 물론이고 남가주 이화 동창회를 대표하여 미션 합창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북미주 동창회 총음악회, 여러 자선 음악회, 배재-이화 정기 연합 음악회등의 크고 작은 음악회에 참여하여 120회가 넘게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목소리를 모은 합창 공연을 했습니다.

2020년 2월 11일의 동창회 이사회에서의 합창을 마지막으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어떤 대외적인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합창단은 이 사태가 끝날 그 언젠가에 대비하여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을 때에도 zoom으로 저희의 만남을 이어 오다가 드디어 지난 7월 3일, 1년 5개월만에 감격스러운 대면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팬데믹 전에는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며 했던 합창단 연습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모여 마스크를 쓴 채라도 노래 할 수 있게 되니 너무도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일 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했을 때 순발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넘치는 우리 임원진과 여러 단원들이 힘을 합쳐서 재빠르게





zoom 미팅을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수준 높고 알찬 활동을 하며 끈끈한 유대를 이어갔습니다: 음악사와 음악가 강의, 전문 에어로빅 강사와 함께 하는 에어로빅, 미술사와 화가/조각가 강의, 요리 교실, 집에서 쉽게 혼자 할 수 있는 체조/운동, 소망 소사이어티에 대한 강의등, 이화 졸업생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유익하고 귀한 것을 많이 배우고 생각할 수 있었던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합창단은 노래라는 공통분모를 통하여 합창 연습과 공연에도 힘을 기울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서로 간의 영적인 교제와 여러가지 모양의 나눔,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가지는 친교의 시간, 서로를 위한 기도와 배려,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는 시간과 경험을 같이 하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특별한 우리 이화 동창 합창단에 오셔서 석재희 지휘자의 은혜로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연습도 하시고 저희와 함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풍성해지는 경험을 꼭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노래를 잘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 우리 동창 합창단입니다. 오셔서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 습: 매주 토요일 9:30 am- 12:00 pm
 장 소: 미주 평안 교회
 170 BIMINI PLACE
 LOS ANGELES, CA 90004
 지휘자: 석재희 (79) (714)452-7600
 단 장: 박영신 (64) (213)999-3696
 부단장: 이윤경 (69) (213)675-0725

문화탐방 모임

이선희(74)



작년 3월 중순부터 Covid19 팬데믹의 무서운 확산세를 막기 위해 문을 닫았던 문화예술 공간들이 지난 5월부터 하나씩 둘씩 다시 문을 열고 방문객들을 조금씩 맞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기쁜 소식에, 6월 9일 기대하던 첫번째 문화 탐방지로 LA Downtown에 자리한 The Broad Museum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1시로 예약된 박물관 방문일정 전에 우선 LA 북창동 순두부에서 모여 한영숙 선배님께서 사주신 점심을 감사히 먹고 선후배간 서로 인사도 나눈뒤, 오랜만에 박물관 나들이 하는 기쁨과 이번엔 어떤 작품들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로 설레며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팬데믹 전염병 예방 수칙을 따라 내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수용 인원수 제한으로 이전의 반이하로 줄인 관람객 입장 덕에 널찍한 전시실에서 느긋하고 편안히 작품들을 감상할수 있어서 특히 좋았습니다.



전시실에서 다시만난 Andy Warhol의 친숙한 작품들. Roy Lichtenstein 이나 Keith Haring의 위트와 천재성 넘치는 작품들을 대하여 상상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낙서 같은 추상작품을 보며 어디까지가 예술이나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Jeff Koons의 귀여운 풍선 강아지 작품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다 전에 그렇게 많던 Jeff Koons의 작품들이 다 어디로 대여돼 갔는지 몇 개 없는걸 보고 좀 섭섭함도 느꼈습니다.

학창시절 60,70년대 TIME 지에서 많이 봤던 작가들의 작품들을 직접 대하여 우리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간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하고 공감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회계사로, KB Homes 를 공동 설립하고 운영한 사업가이며 사회사업가였던 Eli and Edythe Broad 부부가 평생동안 수집한 2만여점의 Modern Contemporary Art collection들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2015년 9월에 개관한 Broad Museum. 자신들이 평생모은 컬렉션을 LA 시민들과 미술애호가들에게 감상할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마련하고 무료관람 할수있게 결단한 통큰 기부왕. 지난 4월 30일 타계하신 Eli Broad님께 감사드립니다.

8월 25일에는 Malibu에 위치한 Getty Villa로 2차 문화탐방을 갑니다.

Getty 재단이 보유한 방대한 collection 감상과 함께 전성기 로마시대 귀족들의 거대한 빌라 양식을 재현해 지은 신문재벌 Paul Getty의 웅장한 Villa를 둘러보는 재미도 큼습니다. Villa의 구조와 건축미도 감상하고 아름답게 조성된 정원도 둘러보며 산책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의 3차 문화탐방은 11월 16일 Immersive Van Gogh Exhibit LA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걷기반

김(오)은경(74)

걷기반을 시작한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LA 로 이사오기전 Rowland Hts 에 살때 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Griffith park을 올라가 걷다가 작년엔 LA 로 이사 온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Pandemic 으로 인하여 1년 정도를 산에 올라 가지 못했습니다. Vaccine 을 맞기 시작 하면서 요즘 들어 다시 걷기 시작 했고 새로 들어온 회원들의 증가로 더욱 활기찬 걷기반 모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모임이지만 걷기반 회원들은 이날을 기다리며 산으로 또는 시냇가로 걸으며 심신의 운동을 한후 맛있는 아침을 나눕니다. 이 모임은 선후배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참 귀한 모임입니다. 모두가 소녀시절로 돌아가 지나간 한주의 일어났던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 합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음식을 나누는 것은 모임의 결속을 단단하게 해주는 데 우리 걷기반은 음식을 함께하는 식사시간이 걷는 운동 시간 만큼 큰 비중을 차지 합니다.

얼마전까지는 회원들이 준비한 아침을 나누어 먹었지만 이제는 16명이 참가하여 3조로 나누어 조별로 음식을 감당하여 몇사람만 아침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늘 coffee를 준비 해주시는 선배, 또 Main음식을 준비 해주시는 선배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걷기반은 여기 까지 왔습니다.

어떤 언니는 자연보호를 위해 물통을 갖고와 나무에 물을 주시며 남들이 안하는 일을 조용히 자연 살리는일에 앞장 서시는 것을 보면 역시 이화인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모두 같이 나이가 들어 가니까 더 자주 모이고 더욱 같이 음식을 나누며 우리들의 남아 있는 삶을 보람있게 즐겁게 보내야 하는데 걷기반이 그런일을 해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걷기반 모임은 문이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참가 하시는 분을 환영 합니다.



이화 코랄

박기순(65)

이화코랄의 현주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팬데믹의 여파로 함께 못한 시간이 일년 반이다. 소리를 내서 화음을 맞추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던 소소한 일들이 그리움으로 들어 나면 마스크 쓰고 손 세정제 쓰면서 전 단원 다 모여 살그머니 회포도 풀었다. 가끔 지역적으로 가까운 회원들 작은 무리가 모이길 서너번... 갈증을 해소하곤 했다.

몰래 만나는 사랑이 더 짜릿한 법! 못 견디게 보고 싶어 ZOOM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연습엔 실패. 마침내 6월 19일부터 공식적으로 연습을 시작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불도저 같은 열정의 강영옥 지휘자님이, 마침 힘을 보태 주는 69 동기 다섯명의 Join 으로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 "역시 69야"는 연습 때 마다 덤으로 듣는 노래의 마지막 귀절 ㅎㅎ. 더 강력해진 리더십으로 단원들에게 퍼붓는 사랑이 넘쳐난다. 선택하는 곡마다 자신이 직접 녹음해서 소프라노 파트를 단독방에 올려준다. 지휘자의 성의에 답하고자 열심히 연습해서, 모이는 날엔 부족한 곳 다듬기가 쉬워진다. 장현주 부단장이 앨토와 메조 파트를 녹음해서 올려주면 누구 한 사람 새곡이라 모르겠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곡을 익히고 가사

를 자연스레 외우게 되면 노래에 자신감이 붙는다.

매주 토요일 버몬과 아담스에 위치한 성 아그네스 성당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실기 연습실 같은 뜨거운 열기로 화음을 맞춘다. 중간에 먹는 재미가 쏠쏠한, 막무가내로 넉넉한 time의 간식시간도 있고... 헤어지기 아쉽고, 자그마한 축하할 일을 만들어 단원들이 쓰는 저녁 한끼의 사랑이 더욱 배부른 연습후의 일과이다. 위로 56년 졸업 언니와 88년 졸업 막내까지 27명 등록된, 노래에 열성파 멤버들에, 74 전안복 단장을 위시해서 75 장현주 부단장의 재무담당 겸임 과 악보담당 80 주유경 총무의 활약으로 풍성한 코랄을 구성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강제 집콕, 방콕을 당하며 쫓아낸 감성들이 코랄을 통해 기지개를 피면서 노래로 꽃을 피운다. 정겨운 대화, 서로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이화 가족의 모임이기에 부담도, 불편함도 없이 먼저 대접하려 하고 함께 즐기며 노래하는 코랄입니다. 앞으로 계획되어있는 무대를 위해서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 열고 환영합니다.



이화인의 재능과 열정을 펼치실수 있는 무대로 동분들을 초대합니다

아그네스 한인성당,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지휘자: 강영옥(69) (213) 500-1829 | 단장: 전안복(74) (818) 468-5244 | 부단장: 장현주(75) (818) 632-4587



골프모임

신은화(74)

골프모임은 일년에 두번 봄과 가을에 열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쉽게도 2020년과 올해 봄에는 골프모임을 못하고, 9월 27일에 Montebello Country Club에서 가을 토너먼트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선, 후배님들과 함께 푸른초원을 마음껏 누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골프를 마친후에는 클럽하우스에서 꿀맛 같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푸짐한 상품을 결드린 시상식과 그동안 아껴두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화창한 오후를 마무리 했습니다.

참가하신 27분께 참가상으로 볼 마커와 Gift Bag을 드렸고, Low Gross 제영혜(70), 장타상 신은화(74), 근점상 최정희(74), 다버디 상 권선희(75), 다파상 장현주(75) & 최순화(72), 다보기상 신서영(66), 행운상 이영희(74) 동창이 받으셨습니다.

토너먼트를 위해 도네이션을 해주신 제영혜, 이해숙, 최동은 동창님과 Gift bags (Golf Socks & balls)을 찬조해 주신 이화교달과 주유경(80) 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게스트로 참여하여 토너먼트를 알차게 꾸며 주신 주디 김 과 수지 김, 그리고 토너먼트를 위해 수고하신 동창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토너먼트는 내년 4월경에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동창분들이 참가하셔서 선, 후배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동창회 골프모임으로 지속해 나갈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화 교실 / 메이크업 교실

심현주(69)



민화 한국화 궁중회화

민화부터 채색화, 궁중회화를 다양하게 배우고 한국의 색을 채색하여 고유의미를 자랑하는 민화 궁중화를 그려서 나만의 장식미술을 표현해보세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자하는 이화 선후배들의 미술실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더불어 삶의 활력과 보람을 작품으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화 생활취미 방문레슨합니다

- 1.민화 아트 개인방문 레슨
- 2.메이컵 개인방문 레슨

Covid 19 때문에 개인방문 레슨으로 전환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예약번호 213-458-0790

서성민(75)

Oh's Osaka
Japanese Cuisine
Teppanyaki & Sushi Bar

123 S. Front Street
Medford, OR 97501

(541) 282-2334
www.ohsosaka.com

OH'S OSAKA
JAPANESE CUISINE

35 N. Central Ave
Medford
(541)-282-2334



1차 실행/ 확대위원회 (4/24: 전안복(74) 자택)



2차 실행/ 확대위원회 (7/ 24 : 용수산 식당)

제 20호 남가주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최한희(64)

56

우리 56년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힘들었던 만남을 7월 둘째주 목요일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라 진심 반가웠고, 그동안 모아 두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푸느라, 모두 실사이 없이 입운동과 귀호강을 시키며 아주 화려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민경림과 김경자 두친구를 떠나보내는 슬픈일도 있었지만...그래도 84살의 나이에 동기들 모두 건강하게 지낼수 있게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냅니다. '56화이팅 !!

한영숙



57

감격적일 수 밖에 없었던 80대 여고 동창생들의 재회였다. 그것도 5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온 지구를 마비 시켰던 팬데믹으로 단순한 일상생활마저 불가능했던 긴 세월을 무사히 넘기고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생의 반려자인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동창이 남가주에서만 둘이나 되었다.

여고 졸업후 60년 넘어 세월이 흘렀으니 이 지역 친구들 끼리는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팬데믹으로 단순한 일상생활 마저 억압되었던 그 세월 끝에 만나는 것이다. 팬데믹 때문은 아니지만 긴 지병으로 고생하던 남편을 지난 12월에 사별해서 마음이 텅비고 허전한 나는 같은 시기에 나처럼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친구를 불러서 위로해 주고 싶었고, 이 전무후무한 팬데믹을 겪으며 외롭고 힘들어 할 다른 친구들도 초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오랫동안의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우리들은 벽에 걸린 남편의 유화들을 바라보며 정성껏 마련한 점심 식사를 나누었고 서로 애뜻한 눈길을 주고 받으며 이 오랫동안의 재회에 감격스러워 했다. 살아있어서 서로 만나니 이렇게 좋구나, 그래 부디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서 다시 반갑게 만나도록 하자, 라는 말을 주고 받으니 먼저 떠난 친구들이 저절로 머리에 올랐다.

오랫만의 재회이니 기념 사진 한장 찍지 않을 수 없다. 세상 떠난 남편의 작품들 아래서 한장, 그리고 잘 생긴 가지들로 푸른 하늘을 받쳐들고 서있는 뒷뜰의 늙은한

Jacaranda 나무 아래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오늘 모인 친구들의 가슴속에는 이 아름다운 재회의 시간들이 깊이 각인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만남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하루였다.

황영애



58

Covid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세월지나며 변해가는 친구들의 얼굴이 보고 싶고, 소식이 그리워서, 또 살아 있음에 감사하며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5월 19일 조선옥에서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8월에 엘에이에서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헤어졌는데...델타 바이러스때문에 만남은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작년에 흥인숙 친구, 올해에는 송명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와 작별을 한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Boston에서 이화를 위해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는 박기춘 친구는 어려운 투병의 터널을 지나, 건강을 회복중인 감사한 소식도 전합니다.

이장란



63

오렌지 카운티 '63에는 모두 19명이 있고, 샌디에고 쪽의 윤혜자, 강재경, 김명자를 포함한다면 22명이 됩니다. 거리상 참석이 어려운 샌디에고 친구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홀수달 셋째 금요일의 모임에 매번 12-13명 정도 꾸준히 모이고 있습니다. 북쪽의 Diamond Bar에 사는 김인자부터 남쪽의 Laguna Wood에 사는 정건희, 이인화 그리고 또 Mission Viejo에 사는 이용복까지 거의 매번 모임에 참석해주니 참으로 우리 '63의 끈끈한 우정과 사랑은 감격이랍니다.

작년 6월 오랫동안 반장을 맡아 수고 해주던 임철자가 시카고로 훌쩍 떠나버려 우리는 모두 엄마(?) 잃은 고아처럼 슬프고 허전하기만 했었지요. 어쩔수 없이 제일 막내(?)인 제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연락반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모두 협조를 잘해주어 진심감사! 지난 5월 모임은 김혜중의 전망 좋은 산속의 별장에 초대되어 산호세로 이사한 김여옥과 또 시카고로 이사간 임철자까지 와서 함께 참석하여 정말 반갑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지요...혜중아! 고마웠어! LA의 우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친구 최정혜가 남편분 세상 떠나시고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치매라는 나쁜병이 진전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른소식은 친구 이용복이가 3월말에 허리수술후 박테리아 감염으로 여러번 재수술로 고생하다가 이제 재활치료중입니다. 박철주도 건강이 안좋아 졌고, 김보영이는 12월에 두번째 스트로크이 와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친구들 모두 하루속히 건강 회복하여 만날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63'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다 9월에 또 만납시다!!

주춘탁



64

코로나로 힘들어진 만남이 백신덕으로 조금씩 자유를 찾아갈 때, 우리 64기는 올해 5월 11일에 신영숙동창댁의 초대를 받아 26명이 참석하는 아주 소중한 첫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물꼬를 트인듯 저희의 만남은 계속 되었습니다. 6월 28일에는 병상에서 회복한 조규령동창이 미네소타에서 방문한 황호숙동창을 환영하는 모임으로 가든그로브의 장모집에서 24명의 동창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8월 14일에는 최한희동창의 초대로 26명이 신영숙동창댁에 모여서 지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웃음과 사랑을 나누었고, 다음모임은 10월 16일... 그래도 올해의 하이리트 모임은 동창연말 모임이겠지요?

최한희



66

매일매일이 처음 찾아온 새날이자 다시 없을 끝날 일인데, 난생 처음 찾아온 COVID-19은 언제나 끝이 날건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작디 작은 우리를 생각하며, 오직 우리가 의지할 크신 그분이 계심이 너무도 감사하다.

작년 (20) 1월 반장 혜옥이 집에서 14명 친구가 모여 즐거운 신년 모임으로 소망의 한 해가 시작 되었다.

2월에는 이화교장, 동창회장, 두 장학생의 LA방문 행사에 우리 동기 14명이 참석했다. 유관순 기념관 개보수 기금 모금을 설명하는 우리친구 이자형 동창회장의 조용한 달변과, 방대한 topic “아리랑 민족의 디아스포라” 박사 논문을 발표하는 71세 박사 이혜옥의 당당함은 너무 멋져서 우리 동기들 마음이 저절로 으쓱으쓱!

3월 부터 시작된 Pandemic 봉쇄에 놀라고 두려운 중에도 카카오톡 으로 Zoom 으로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21년 1월에는 고3때 우리 반 반장이던 정창용 13대 이사장 취임이 있었다.

4월에는 윤여정의 “Minari”로 Oscar 상,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수상소식으로 온세상을 발칵 놀래켰다.

5월에는 혜옥이 논문이 “아리랑 민족의 디아스포라” 제목의 책으로 한국판이 출간되었고 7월에는 영문판으로 ‘Koreans In Transnational Diasporas of the Russian Far East and Manchuria’ 로 출간 되었다. 축하 축하!

6월에는 서동현의 미술전이 있었다. 동현의 예술성 위에 역사적 의미가 더해진 특별한 주제 ‘COVID-19전시회였다.

7월 들어서 ‘Over 70 LA 작가 8인’에 선정되기도 했더니 아무렴 그렇지 당연!

2월과 5월에는 반장 혜옥과 SF 김영신이 사랑하는 부군들을 먼저 보내는 슬픈소식이 있었다. 슬픔중에도 의연히 이겨내는 친구들 보며 우리가 오히려 힘과 위로를 받고 있다.

5월에는 Cheesecake Factory lunch에 13명이 모여 Pandemic 전쟁에서 돌아온 용사들의 재상봉 같은 감격으로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55년 재상봉 모임을 LA에서 주관, 10월에 기념 여행을 계획하며 우리 나름대로 정성껏 최선을 다해 대접하자 다짐했는데 기다리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은 취소하게 되었고, 아쉬운 마음에 2박3일 short trip으로 Los Robles 기차 여행을 훌쩍 떠난 용감한 여덟 할머니들, 너무 재미 있었다고 자량이 늘어진다.

7월 8일에는 용수산 식당에서 혜옥이 책 출판기념회(약식이지만)처럼 모였다. 한국 에서 방문 중인 조현순이 참석해서 좋았고 아직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야 한다며 원근 각처에서 19명이나 참석했다. 역시 많은 친구들을 보니 왁자지껄 엄청 좋았다.

여기 안 쓴 다른 친구들도 모두 각자 처한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잘 알기에 친구들 생각하면 늘 감사 감동이다. 모두 영육간 강건들 해서 오래오래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어 나가길. 아자아자! 사랑해!

안정옥

동기회장 혜옥이 올린 Sensorio Los Robles 영상의 환상적인 빛의 공연 사진과, 또 기차여행을 할 수 있는 2박 3일의 단기여행 제안이라니... 발 빠른 8명이 카톡방에 등록했다. 반장 혜옥과 도우미 엘영희가 일사천리로 호텔과 기차표 예약, 버스 편, 입장예약, 그곳에서 우리의 발이 되어 줄 우버 택시 정하기 등등 굵은 일들을 해주었다. 덕분에 우리 모두 스트레스 후리 여행이었어!

6월 23일 수요일 오전 9시 23분, 2층 객실에 자리잡고 소풍나온 7학년 할머니들...삶은 계란과 군고구마로 아침결. Pacific Surfliner 라는 별칭 처럼 태평양 바다를 끼고 도는 Amtrak 기차여행이 편안하여 4시간 수다 떨며 오다보니 샌루이스 오비스포 도착. 여기서 버스로 30분 달려서 Allegretto Vineyard Resort 라는품위있는 호텔에 도착하다. 첫날은 호텔뒷산 하이킹으로 몸을 풀고 이튿날 Sensorio 관광 하는 날. 금강산도 식후경 이라고 Los Robles 다운타운 에서 이른 저녁을 먹기로 했다. 우버 기사님이 소개한 THE CATCH 라는 이름의 음식점에 가서 초피뇨 라는 얼큰한 이태리식 해물탕을 나누어 먹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네! Sensorio Los Robles 는 해질 무렵부터 볼거리가 시작된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 해 지기를 기다린다. 15 에이커 되는 언덕에 58,800개의 Solar powered light 을 심어 놓았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설치 예술가인 Bruce Mun-ro 의 가장 큰 규모의 설치작품 이란다. SOLAR ENERGY 를 축적해서 밤의 꽃을 피워내는 예술가의 창의력이라니... 낮에 피는 꽃들 보다 더 화려하게 명멸하는 밤 꽃들이 가지각



색의 색깔들로 반짝인다.

불등으로 피사의 사탑처럼 세운 원통형설치 작품은 기하학적으로 보이고 또 불의 색깔들과 크기 등이 자아내는 신비함이 있었다.해가 떨어지니 사막의 기후처럼 기온이 급강

하 하는 것을 대충 입고 온 죄로 후덜덜 떨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밤 9시 넘으니 문을 닫는다네. 오늘 밤은 호텔에서 따뜻한 샤워를 해야지...

또 한가지, 스탠드 옆 즉석 코미디? 로 우리를 즐겁게 해 준 친구들 고맙 고맙!정순희가 와인 테이스팅 코트에서 선글래스 잃은 것 알자 어디에 떨어졌을까 몰라 자기가 움직였던 동선을 따라 이리 저리로 헤메다가 지쳐 친구들이 앉아 있는 라운지의자에 털썩 앉으며, 맞은편 의자에 앉아 천연덕스럽게 담소중인 엘영희를 보더니 하는 말 “애, 그 안경 내꺼 같아!”

‘.....’ 말없이 안경을 벗어주는 엘영희의 무심지순한 모습에 모두 배꼽 빠지게 웃었다. 7학년 애교로 봐줄게! 아무렴, 즐거운 일탈이었어! 즐거운 여행이여!!!

김영희

67

저희 '67기는 주로 Fullerton 지역에서 두달에 한번씩 만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한 펜데믹 기간에는 어쩔 수 없이 조심하느라 집에서 지낼 수 밖에 없었지요.

모두 예방 주사를 맞고 모일 수 있는 시기가 오자, 씩씩한 노정란이 본인의 집을 기꺼이 열어 주어 즐거운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화가로서 한국과 미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란이는 살림에도 어찌나 솜씨가 좋은지 집안을 본인의 작품과 앤틱작품들로 아름답게 꾸며 냈고 게다가 음식 솜씨 또한 일품 이었답니다.

우리 동기들이 모처럼 즐겁게 회포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지요.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의 아쉬움이 컸답니다.

또한 동기 최영희는 자폐증인 안젤라를 입양하여 삼십년 이상을 키우고 있는데 멕시코 선교를 스스로 운전하며 거의 매주 다녀 온답니다.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불쌍한 이들을 위한 영희의 수고는 끊임 없이 지속 된답니다.

항상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도예에 전념하는 박영신 동기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Mückenthaler Cultural Center 에서 오랫동안 도예반을 지도하며 전시회도 꾸준히 한답니다. 개인전과 그룹전도 여러 차례 했지요. 일일이 다 소개하고 싶지만 대표적인 활동을 하는 친구들만을 부각시켰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화인의 긍지를 가지고 평범하며 비범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동문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더욱 힘쓰시고 좋은 세월이 다시 와서 함께 즐거이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 하겠습니다.

송혜성



68

68기는 Covid 이후 9월 9일, 1년 8개월 만에 첫 모임을 JJ Grand Hotel에서 모여 그립고,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났다. 그동안 친구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한 친구는 일본서 digital horn을 구입해 혼자 배워 교회 성가대에서 연주 하고 우리 카톡 방에 가끔 연주를 보내 우리를 즐겁게 해 준다. 또 목사님인 친구는 이번 영적 대각성 대회 연사로 초청되고, 가족들과 Canyon을 두루 다니며 여행한 친구, 남편과 함께 Bible을 통독한 친구도 있다. 맘 편하게 털어 놓는 귀여운 불평들이 해 맑은 웃음을 타고서 날아가 버린다. 지혜로운 친구들은 오히려 pandemic을 감사하며 지내고 있다고 고백한다.



슬픈 소식도 있었다. 3월 3일 사랑하는 친구가 폐 섬유화 증상으로 오래 고생 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일, Seattle로 이사 갔다가 다시 LA로 온 친구의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신앙심 깊고 서로 배려하며 기도 해 주는 모범적인 우리 68기는 2023년에 졸업 55주년 여행을 벌써 준비하고 있는 열정도 있다. 68기 화이팅!

박혜선

69

남가주에 거주하는 69동기, 30여명중 20여명이 동기모임에 활동적이다.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몇친구를 제외하고는, 은퇴하여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은퇴생활을 알차고 여유 있게 보내고있다.



Covid Pandemic 상황이후, 모두 두번째 Vaccine접종을 마친후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4월에 첫모임을 야외에서, 10명의 친구들이 모여 산책과 그동안의 쌓인 안부와 소식을 전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동기애를 돈독히하였다. 7월, 3번째 모임에는북가주에서 온 친구들, 친구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자 Fresno에서 4시간 운전하여온 친구, 50년만



에 만나는 친구들, 특히, 어려운 병고를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 친구를 보고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환영하며, 장안이 떠내려가도록 깔깔대며, 회포를 풀고 건강, 미용, 친환경 정보들을 나누며, 스스럼없는 우정을 다시한번 만끽한 알찬 모임이었다.

박혜옥

70

2020년에 졸업 50주년 재상봉을 위하여 모든 행사일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희 70동기들은 pandemic 덕분에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작년 1월 모임을 마지막으로 허탈한 마음을 집콕으로 달래다가 15개월만인 5월 13일에 감격스런 모임을 백해란 집에서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멀리 인디애나에서 살던 김정은이 LA로 이사왔고, 오랫동안 LA에서 살던 이숙희, 김옥이가 자녀 가까이 Texas, Hawaii로 이사했고, 김용복은 한국으로 영주귀국하였고, 우리들의 재간동이 김임숙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순간순간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열심히 만나자고 다짐하였습니다. 송모령



72

저희 72기 친구들은 정기적으로 매달 번갈아가며 LA와 OC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펜데믹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2021년 3월 부터는 매달 장소를 옮겨가며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모임은 Corona로 이사한 강은주가 집으로 초대하여 친구 18명이 점심부터 저녁까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이날 이해란이 집에서 전통 재래방식으로 정성을 다해 손수 담근 귀한 간장과 된장을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얼마나 맛이 깊고 구수한지요... 존경할 따름입니다. 함께 오랫동안 베풀시장도 열어서 \$800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김경덕이 8월 21일에서 23일까지 Palm Springs Resort로 친구들을 초대하여 13명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현재까지 왕성하게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는 박다애 작가가 요즘 Shatto Gallery 와 LA 아트 코어 유니언 센터 두 곳에서 8월과 9월 2달간 열리는 "디아스포라 아리랑" 전시 큐레이터를 맡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엔 저희 동기가 "이화여고 졸업 50주년" 을 맞이합니다. 예정대로 모교에서 행사가 진행된다면 많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영화

73

2020년은 조심스러워서 동기들과 의 모임은 가질 수가 없었으나 동창회의 행사는 다음과 같이 계속 되었다. 10월의 문화탐방과 빌케티 문화탐방 (전 연옥 담당), 2020년 마지막 실행위원회 모임까지 정애수 회장이 2년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였다. 그리고 모교에서 보내온 마스크를 엘레이와 오렌지 카운티의 동문들에게 기대표를 통해서 나누어 주었다.

5년마다 남가주 동창 주소록을 발간하는 작업은 코로나로 실내 만남이 여의치 못해서, Torrance의 Delthorne Park에서 띄엄 띄엄 떨어져 소수의 친구들이 편집과 교정을 보았었다. 자유롭지 못한 생활규제에도 불구하고 열성으로 동창회일을 하던 박연옥 편집장을 비롯한 우리 73동기 친구들... 보고싶다. 그 때까지 건강하게 버티어다오 !!!



언제나 마음껏 웃으며 반갑게 만날수 있을지.

김해숙

74

이번 2021년부터 2년간 회장단 임무를 맡아 활동하게된 우리 74동기 모임은 뒷보다 탄탄한 우애와 사랑, 배려로 따뜻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아직 무지의 공포로 두려워 하던 Covid 19 팬데믹 때문에 조심하는 뜻으로 직접 만나는 모임을 갖지는 못했지만 여름부터 zoom meeting 으로 2주에 한번씩 한시간 정도 서로 얼굴도 보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먹고 한가해지는 8시부터 zoom meeting 을 했더니 어두워 조명 안좋지, 화장 지웠지, 팬데믹 기간이라 미용실도 다 닫으니까 염색도 못하고 안하게 돼서 갑자기 반백머리 되어 나타나지, 동양인 얼굴 특징상 화면발 안받지 등등의 이유로 처음 한두번 만날땐 모두 경악(?)과 적응의 과정을 거쳐야 했답니다. 하하하



이젠 대부분 예방주사를 맞아서 지난 4월엔 10명이 중현이 집 뒷마당에서 모여 텃밭에서 키운 야들야들한 상추를 곁들인 불고기로 점심을 먹으며 그동안 싸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시간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얼마전 8월 중순에도 안복이 집에서 12명이 모였습니다. 서로 준비해온 각종 나물들과 반찬 모아놓고 환상적인 비빔밥 파티도 즐기고 7,8,9월생들의 생일 축하도 해주었습니다. 특히 지인이가 집에서 부화해 아기처럼 돌보며 키운 병아리들이 자라 낳은 유정란을 모아 가져온 달걀은 맛도 환상, 지인이의 친구사랑도 환상. 두고 두고 생각 날겁니다.

앞으로는 9,10,11월 매월 한번씩 모여 12월 동창회 송년모임에서 선보일 장기자랑 준비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74 화이팅!

이선희

75

우리들의 75학번 모임!

만날 때마다 반가움과 설레임 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수다들~
환상 가득 차려진 멋진 식탁 만큼
웃음 한가득 ~

은퇴 를 한 친구 들
현지에서 활동 중인 친구들
요즘 은 점점 건강에 관심이 증폭되고
아! 손주 이야기 까지...



지금도 여전히
미래를 꿈꾸는 우리의 75학번 이랍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75학번!!
우린 영원한 이화인이랍니다



장현주



77

“저희 77기는 무소식이 희소식 이라고 팬데믹 이후 전체 모임을 갖지 못하고 같은 동네 친구들끼리 산행도 하고 점심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영숙 친구가 20여년만에 이 사한 앨바인에서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정은경

앨바인에서의 새로운 삶.

올해 1월, 20년 이상 살았던 아이들의 고향, L.A(San Fernando Valley)를 떠나, 큰딸의 직장이 있는 Irvine으로 이사를 했다. 대표적인 계획도시인 이곳, 어바인에서의 새로운 일상의 삶을 소개하려고 한다.

동네마다 넓은 공원이 있고, 주택가 중심을 가로질러 1시간 이상의 산책 코스가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산책 코스에서는 걷는 사람,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와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 소풍 나온 사람들로 활기차다.

산책길은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한 길은 포장도로이고, 다른 한 길은 흙길로 옆으로 굽어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흙으로 된 비포장길을 선호해 주로 이 길로 다닌다. 흙을 밟으면 더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힘차게 걷는다. 가는 도중 군데군데 큰 공원 등이 가슴을 뻥뚫리게 한다. 집에서 30분 거리에 O'Neill Regional Park 캠핑장이 있다. 코로나 시기에도 개장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캠핑장,하이킹 코스, 자전거 코스, Picnic Area, (개인,단체) 승마 할 수 있는 말 등이 있다. 하이킹 코스는 거리별로 5-6가지의 다양한 코스가 있다.

그중의 하나 비포장 자전거 하이킹 코스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르막 길이 없는 평지로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다. 2시간 정도 걸어야 끝이 올 것 같은 이 길은, 길 양옆으로 작은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이 풍경에야!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내 어릴 적 신작로 길이 여기에 있네~." 순간 타임머신을 타고 한국에 가 있었다.

어릴 적 신작로 길을 따라 30분 등.하교 했다. 더운 여름날

띄약별 아래 하교를 할 때면, 마실 물도 없이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여러 번 가로수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히면서 지친 몸을 쉬어 가곤 했다.

그때마다, "이 길이 자동으로 돌아가며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머릿속은 짝 차 있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집앞에 다다라 있었다.

몸이 약한 나는 왜 이렇게 학교를 멀리 다니며 쓸데 없는 고생을 해야 하는지 불평.불만으로 하교길을 다니곤 했다.

걷는 도중에 활짝 핀 선인장꽃들과 야생화가 나를 반기며 웃는다. 태고의 신비를 알려 주듯 고목 나무들은 군데군데 쓰러져 세월의 무상함을 알리고 있다.

한 무리의 사슴이 멀지 않은 시야에 후드득 지나간다. 간간이 말 타는 사람과 산악자전거 팀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넨다. 큰 숙제를 마치고 인생에 내리막길 앞에 선 나는 적막하고 고요한 이 길을 나 혼자 걷는다. 내 안에 고요함이 흔들린다. 무언의 소리가 들린다. "지금껏 잘 살아왔다"고... "사느라 수고했노라"고...속삭인다.

돌아보면 그 띄약별에 고생스럽게 느꼈던 그 시절이 내 생애 가장 평안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코로나로 가슴이 답답할 때, 이곳을 찾아 분주한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힐링의 시간으로 새 힘을 얻는다. 돌아오는 길, 내 앞, 저 멀리 아지랑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흘러가는 긴 세월 저 편 뜨락, 신작로 위에 9살 소녀가 말없이 걷고 있다.

최영숙





제 20호 남가주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강재경(63)



남가주 동창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영희(74)
동창회 회장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021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김은경(74)
동창회 부회장



제 20호 남가주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윤연순 & 57 동기일동

박 성녀(68)



Charagape Ministries

기쁨 사랑 선교



Dr. Curtis Hiebert,

Dr. Charlyn Hiebert (박 성녀목사)

Contact information: 323-820-8520 charcurt3@gmail.com Add: 4334 York Blvd. Los Angeles, CA 90041

(Charagape Ministries, as a 501 (c) (3) organization receives your gifts for the purposes identified in our appeals. Per IRS regulations, we state that no goods or services were received in exchange for this donation.)

남가주 이화여고동창합창단



제 20회 거울지 발행을 축하드리며
남가주 이화여고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단 장 : 박영신(64) 213-999-3696

지휘자 : 석재희(79) 714-452-7600

매주 토요일 모임을 갖고 있으니 참석하기 원하시는 동창께서는 위의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제 20호 남가주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호진희(64)

웨스턴
3가

라이프 의료기구용품

Since
1989

김정자(64)

※개업 33주년 기념 세일



라이프 의료기구 지점 (그랜드 메디칼 센터)
 Tel. (213) 386-1707 / Fax (213) 480-3247
 500 S Virgil Ave., #106, Los Angeles, CA 90020 (6가 + Virgil)



의료기구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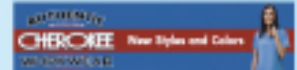
환자용전기침대/휠체어/워커/산소호흡기/이동식변기/목욕실보조기구/노인용기저귀,
 혈압기/혈당검사기/3M 청진기/진단기셋/인공유방 및 브라(Lingerie), 스타킹,
 간호원 유니폼, Table Paper, Inversion Unit, Tens, 마사지기구, 온열기,
 손세정제, 알콜 70%, 99%, 덴탈 마스크, Kn95, Face Shield, Glove



Accredited by the Joint Commission

※가성형 특수 신발,
당뇨인을 위한 특수 신발 ※

간호원 유니폼 세일



- ▶대표: 김정자
- 이화여중, 고졸업
- 이화여대 사범대학 영양학과 졸업
- 영양사(한국)

LIFE MED

※ 영업시간 ※ • 월~금요일: 9시 30분~5시 30분
 • 토요일: 10시~3시 • 주일: 휴무

3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5-9133/ Fax.(213)385-3121
 lifemed333@gmail.com



D & H Beauty Clinic

에서 스페셜 케어를 해드립니다

28년 경력을 바탕으로
개개인에 맞는 맞춤관리로 건강한
미모와 맑은 피부를 찾아 드립니다.

- 얼굴 경락, 림프 드레나주
- 여드름, 민감성 피부 관리
- Anti-Aging, 미백관리
- Beauty peel
- 근적외선 골드 테라피
- 최첨단 기술로 점, 쥐뿔,
검버섯, sun spot 제거
- Beauty art
3D 반영구 눈썹
점막 아이라인(무통증)
입술라인, 립틴트
- 속눈썹 연장

D & H Beauty Clinic

Tel: 657-700-8115, 562-818-4371
2250 Rosecrans Ave. Fullerton. Ca 92833
(Century 21 부동산몰)

이혜진(74)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wha Chorale



지휘자: 강영옥(69) 213-500-1829

단장: 전안복(74) 818-468-5244 부단장: 장현주(75) 818-632-4587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 한인 아그네스 성당 | 2625 Vermont Ave., LA, CA 90007

남가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2021 거울지 발행을 축하합니다



전안복(74)
동창회 부회장

동창회비 내신분 (351 명) \$10,810

- 출발년 재학시 성명**
- 모름 김숙자
 - 46 신호순
 - 52 김봉숙, 김희경(100), 이명숙, 이충선(100), 최영혜
 - 53 김애선, 석윤희, 임인자, 한명순
 - 54 김숙정, 박정옥, 서현숙
 - 55 구철희, 박영균, 박정자, 유영옥, 윤석순, 전영희, 최옥주, 최현숙, 홍연숙
 - 56 김경자, 김순성, 김영순, 김정은, 맹혜숙, 박희경, 송영자, 원순주, 유경선
이성숙, 이정희, 이혜리, 최화자, 한영숙, 허명숙
 - 57 김미희, 김혜련, 반옥림, 윤연순, 윤 훈, 이안나, 이양훈, 임영실, 장대옥
장명숙, 전영옥, 정수혜, 차명숙, 최문영, 황영애
 - 58 김부미, 박안자, 방부혜, 송 명, 윤정애, 이경옥, 이영희, 최운봉
 - 59 김수경, 김혜진, 박승자, 연혜정, 우애자, 원효정, 장선용
 - 60 김동승, 민경문, 신호국
 - 61 금동심, 김옥지, 김인숙, 변경자, 심민자, 양혜명, 오순자, 오용주, 윤수경
이미자, 최신자
 - 62 강미자, 김차남, 변양자, 송영자, 유혜란, 이경자, 이희경, 조양자, 최숙자
 - 63 강승자, 고혜원, 김명자(cer), 김명자(encs), 김보연, 김송자, 김여옥,
김윤자, 김인자, 김혜자(oc), 김혜중, 나춘실, 박경희, 박철주, 윤혜자,
이경옥, 이명자, 이상옥, 이수미, 이영애, 이용복, 이인화, 이정숙, 이정자,
이혜련, 이혜숙, 임주자, 경건희, 주춘탁, 차광혜, 최경자, 최애자, 황신실
 - 64 고광애, 김명옥, 김문자, 김소연, 김정선, 김경자, 김진순, 김태옥,
박순옥(50), 박영신, 방인숙, 배경순, 백현자, 서원희, 신영숙, 안순희,
이복희, 이봉숙, 이옥경, 이정희, 이주희, 이현숙, 전명원, 조규령, 조길자,
최금화, 최한희, 최혜경, 최희경, 호진희, 홍순조, 홍은식
 - 65 김영주, 김은주, 김재기, 송혜경, 오영옥, 유소열, 유향전, 이정란, 이정혜
장명희, 전서경, 전애린, 허순희
 - 66 길희경, 김영희(gl), 김영희(la), 김영희(oc), 김영희(ohio), 김옥혜, 안정옥
윤봉진, 이정숙, 이혜옥(mi), 장영희, 정순영, 정순희, 정은자
 - 67 김 숙, 김동순, 김명숙, 김종우, 도경애, 박영신, 박혜숙, 송성남, 송현숙
송혜성, 신중애, 유재영, 이미경, 이상민, 이영주, 전용선, 조민선, 최영희
 - 68 금봉숙, 김정선, 김광숙, 김명숙, 김애권, 김인수, 김경신, 김태숙, 김혜실,
김효숙, 박성녀, 박혜선, 백영희, 심용남, 윤미훈, 이문희, 이선숙, 이수인,
이영주, 이향저, 이혜정, 전민자, 정현진, 조희서, 지용애, 최영희, 최윤복,
한금숙, 한숙희
 - 69 강영옥, 권민희, 김내한, 김용화, 김현순, 문정인, 박혜옥, 성애경, 심현주,
윤경혜, 이의정, 이혜경, 이화숙, 한정해
 - 70 김영미, 소일심, 홍훈정, 70기일동(300)
 - 71 김경진, 문성희, 문순옥, 안영숙, 임채란
 - 72 권영화, 김경덕, 김은미, 김인경, 배경희, 백경희, 서혜영, 이대경,
이영숙(A), 이혜란, 이희목, 전혜란, 정경실, 최동은, 황진숙
 - 73 김혜숙, 김혜림, 남은영, 박연옥, 박현숙, 신선희, 신연옥, 신연철, 이선옥,
전연옥, 정애수, 정유진, 정은복, 홍미향
 - 74 권귀숙, 김은경, 김정미, 김중현, 김지인, 박정우, 신은화, 유선이, 이경선,
이선희, 이신숙, 이영희, 이현경, 이혜진, 장난희, 전귀민, 전안복, 조유환,
지희자, 최정희, 현일선(100), 황미양
 - 75 김미례, 김수미, 문애리, 박정애, 서숙영, 안원숙, 안정림, 원철경, 이경숙,
이주혜, 장현주, 최원경, 한영덕
 - 76 김혜경, 김혜주, 문명화, 박명숙, 박성옥, 박유리, 박은경, 박은란,
윤경옥(윤원선), 이성자, 이영심, 전유애, 정영옥, 최혜경, 한애나
 - 77 강소영, 김미혜, 심 영, 정은경
 - 78 박혜경
 - 79 강애자, 석재희
 - 80 박원선
 - 87 김은이(50)

이사회비 내신분 (162명) \$26,770

- 출발년 재학시 성명**
- 46 신호순
 - 53 임인자
 - 55 윤석순, 전영희, 홍연숙
 - 56 김경자, 맹혜숙, 박희경, 송영자, 이혜리(200), 정태숙, 최화자,
한영숙(500), 홍정임
 - 57 김혜련, 윤연순, 이안나(200), 이양훈, 차명숙, 황영애
 - 58 박안자, 송 명, 최운봉
 - 59 김수경, 김혜진, 연혜정, 우애자, 장선용
 - 60 김동승, 민경문, 신호국
 - 61 오순자, 윤수경
 - 62 김차남, 송영자, 이경자(200), 조양자, 최숙자
 - 63 강재경(1000), 김명자(encs), 김보연, 김윤자(200), 김여옥, 이경옥,
이용복(200), 이혜숙
 - 64 김명옥, 김경자(3000), 박영신, 신영숙, 이주희, 최한희, 최혜경, 호진희
 - 65 김대봉, 김영주(2000), 김재기, 노현숙, 송혜경, 신현숙, 이정란,
전서경(200), 전애린(200), 허순희
 - 66 김영희(gl), 김영희(la), 김영희(oc), 윤봉진, 이혜옥(예), 장영희, 정순영,
정순희
 - 67 김 숙, 김동순, 도경애, 박영신, 송현숙, 송혜성, 신중애, 유재영, 이미경,
이상민, 이영주, 전용선, 최영희
 - 68 금봉숙, 김광숙, 김애권, 김효숙, 박성녀(200), 박혜선, 이문희, 이수인,
이영주, 전민자, 최영희, 한숙희
 - 69 강영옥, 김용화, 문정인, 박혜옥, 성애경, 심현주, 윤경혜, 이의정, 이혜경,
이화숙, 한정해
 - 70 김성숙, 김영미, 김춘영, 백혜란, 송모령, 제영혜, 홍순애, 홍훈정(2000)
 - 71 문순옥, 안영숙
 - 72 권영화, 김경덕, 김인경, 백경희, 이대경, 이혜란, 최동은, 황진숙
 - 73 김혜숙, 김혜림, 남은영, 박연옥, 박현숙, 신선희(500), 신연옥, 이선옥,
전연옥, 정애수, 정유진(200), 정은복, 홍미향
 - 74 김은경(300), 김정미(300), 김중현(300), 이선희, 이영희(300), 이혜진,
전안복(300), 지희자(300), 최정희
 - 75 장현주
 - 76 박은란, 이성자, 이영심, 전유애, 최혜경, 한애나(170)
 - 77 강소영, 김미혜, 정은경
 - 78 박혜경
 - 79 강애자
 - 80 박원선
 - 82 김희선

거울지 후원금	\$15,300
기별 후원금	\$4,400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광고 및 개인 후원금	\$10,900
이충선(52), 홍연숙(55), 한영숙(56), 윤연순(57), 차명숙(57), 강재경(63) 이용복(63), 김경자(64), 최한희(64), 호진희(64), 박성녀(68), 이혜경(69), 강은주(72), 김은경(74), 이영희(74), 이혜진(74), 전안복(74), 서성민(75), 56기, 이화여고동창합창단, 이화코랄	
장학 후원금	\$6,000
박영신(64) - \$5000, 백혜란(70) - \$1000	
환경 후원금	\$1,000
호진희(64) - \$500, 72기 - \$500	
기타 후원금	\$900
김옥규 선생님, 차명숙(57), 75기 (송년)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성명, 졸업년도, 금액) 필요하시면 기대표나 동창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미주 장학금

2021년 10월 31일 마감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에서는 여러 동창님들의 정성어린 기부금으로, 매년 본국과 미주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국 장학금은 올해 초에 벌써 \$10,000 (박영신 개인 장학금 포함)을 모교에 보내드렸고 지금은 미주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9월 초에 기대대표님들을 통해 알려 드린대로, 학업이 우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대학, 대학원생들은 장학금 신청서를 이메일로 받아, 이화여자 중 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원의 추천서, 성적 증명서와 함께, 10월 31일까지 joonghyunkim@hotmail.com 김중현(74) 교육위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4명의 학생들을 선출하여, 12월 초에 각각 \$1,000 씩 장학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장학금 기부나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수인 (68) 장학위원장 909-762-8027, 김중현 (74) 장학위원 562-896-4102, 주유경 (80) 장학위원 213-820-455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선교비 후원

2021년 10월 31일 마감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에서는 매년 해외에서 선교사업에 수고하시는 동창 몇 분께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9월 초에 기대대표님들을 통해 알려 드린대로, 올해에도 12월 초에 드릴 예정으로,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이영희 (74) 동창회장 eyhkim@gmail.com 310-292-6766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남가주 동창회 2022-2023 공천위원

2021년 10월 31일 후보공천 마감

이화여자 중고등학교 동창회 회칙 제 8장 4조에 의하여 2022년과 2023년 2년 동안 임무를 맡을 3명의 새 공천위원을 12월 4일에 열릴 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입니다.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이 공천위원회는 2년에 한번씩, 동창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을 공천하여 총회에 제출합니다. 현재 5명 중, 2명 공천위원은 임기가 일년 더 남았으므로, 올해 총회에서는 3명만 새로 선출합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2021년 10월 31일까지 새 공천위원 공천을 받고, 3명 이상의 공천이 들어오면 12월 4일, 총회에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창님들의 협조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천이나 더 자세한 문의는 이영희 (74) 동창회장 eyhkim@gmail.com 310-292-6766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선(52)

**한아장학재단과 꿈을 함께 하며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은퇴 후 케냐에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 몇 몇을 돌보아주려고 시작한 학교가 직업학교가 되어 그 도시의
좋은 일꾼들을 키워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학교 아이 한두 명을 데려와서 선진국의
공부를 좀 더 시켜보자 하는 마음으로 13년 전 한아장학재단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섬김으로 시작하였지만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온 젊은이들을 모아 선진 교육을 시키고
그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장학사업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뜻을 함께 하시는 후원자들의 귀한 섬김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16개국에서 온 학생
20명이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모두 마쳤고 이제 4명의 재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한말 개화기 때 미국 선교사들이 이화여대, 연세대학 같은 미션스쿨을 세워 지금의 발전된
한국을 이루는데 초석 역할을 했듯이, 한아장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러 어려운 나라에
세종학당과 성서학당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어대학, 기독교 종합대학을 설립하여
'교육선교를 통한 개발도상국 살림운동'의 꿈을 이제 새롭게 꾸고 있습니다.

지난날 한국이 그랬듯이 이곳에서 키워진 젊은 지도자들이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를
발전시키고 기독교를 뿌리 내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K-Pop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금이 제3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꼭
준비된 때 인줄 믿고, Mongolia와 Kyrgyzstan 두 나라부터 시작을 하려 합니다.

각자 소명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맹과 기아로 고생하는 나라들의
탁월한 인재들을 키우는 일도 참 보람되고 뜻 깊은 사역이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로,
전문지식으로, 시간의 헌신으로, 물질의 후원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선교에 함께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UHN & HANAH PARK FOUNDATION

2349 Jefferson St # 101 Torrance, CA 90501 Tel:310-701-0852, e-mail:shpf@hanmail.net



HANAH Beauty & Health Inc.

221 Star of India Lane, Carson, California 90746 • Tel. 800-821-4262

• **본사: (800)821-4262 / (310)320-0852** **판매점 모집**



주춤주춤, 멈칫멈칫, 지난해부터 시작된 “할까말까”의 행진곡은 지금도 계속된다.
 복면가왕이나 된듯, 우리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만남을 시작했다. 그것도 6 feet 거리를 두고.
 가뜰이나 소리에 둔해진 귀가 어려움을 겪지만, 눈빛으로 감정을 전하던 수줍은 젊은 날로 돌아가서...
 나름 매력있는 소통이다. 생각될 즈음에 재택근무로나마 경제위기를 덜어 내야 한다며,
 또 만남을 미루던 마음들이 영글어, 아주 열심히 핸드폰과 컴퓨터 화면에 올망졸망 얼굴들이
 모여서 일도하고, 수다도 떨며... 목말랐던 여러가지 형태의 모임이 진행된다.
 여기저기서 ZOOM 미팅이 대세다.
 그러다 위대한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야호!
 조금씩 일상의 궤도로 가던중에 또 변이 바이러스로 브레이크가 걸린다, 아이쿠...

이렇게 74학년이 동창회 임원직 baton을 넘겨 받으며 맡겨진 거울지,
 어김없이 할까말까 행진곡에 걸려 망설이던 중에, 이시절을 같이 견디고 있는
 친구와 선배들의 소식을 우리“거울지”가 전해 주어야 하잖아... 라는 생각에 심공 !!
 6.25전쟁의 폭격으로 무너진 교사에서 300여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벽돌 한장한장 나르며
 노천극장을 짓기 시작했고, 이화인은 언제나 거울을 보고 마음의 자태를 바로 잡으라는 당시
 신봉조 교장선생님의 교훈에 따라 “거울지”가 탄생했다. 이제는 남가주 동창들 마음의 자태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음을, 20호 출판을 위해 이곳저곳에서 모여지는 동문들의 소중한 글과
 여러가지 어려움과 병회복 중에서도 보내주시는 풍성한 후원을 받으면서 확인하게 되었다.

정직한 거울때문에 곤욕을 치룬 백설공주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좋다. Happy Ending 이니까.
 남가주 동창회보인 거울지는 이제 아름다운 백설공주들의 행진곡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식탁에 둘러 앉아 원고 교정을 보며 눈을 반짝이는 74의 백설공주들은 왜 이리 더 예쁘지?
 어느날인가 거짓말을 못하는 거울을 자주 보지 말자고 주름진 내얼굴과 약속했는데...
 오늘만은 거울을 보고 또보는 여기 백설공주들 사이에서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진다.

전안복 (74)

추신: 지난해까지 그저 슬쩍슬쩍 지나치며 넘기던 모든 글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한글, 한글이 이리 귀하게 만들어지고, 다듬어 졌는데, 그걸 몰랐으니...용서하소서!!!



梨花

2021년 이화 53차 정기 총회 및 송년모임

- 일시 : 12월 4일(토) 오전 11시
- 장소 : Oxford Palace Hotel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 회비 : 1인 \$70 / 부부동반 : \$140
- 연락처 : 이영희 (310) 292-6766
eyhkim@gmail.com
지희자 (323) 683-4255
misscal_y2k@hotmail.com

팬데믹으로 인해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발생할수 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화여자중 · 고등학교남가주동창회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